



明慧週刊



麥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64期(2025.12.04) WWW.MINGHUI.ORG

한글판 1028호 minghui.or.kr



▲ 명혜망 제22회 중국 법회가 12월 2일에 끝났습니다.

주요내용

【편집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부님 평어

【수련교류】 각지 수련자는 주보 현지판 편집 제작을 중시해 맡아주기 바란다

【중국법회】 남편의 억울함 호소하며 법률을 이용해 진상을 알리다

【중국법회】 거대한 시련 속의 신성한 큰 시험

〈목 차〉

■ 명혜편집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부님 평어 3

■ 수련교류

각지 수련자는 주보 현지판 편집 제작을 중시해 맡아주기 바란다 ... 4

■ 중국법회

남편의 억울함 호소하며 법률을 이용해 진상을 알리다 (상) 6

남편의 억울함 호소하며 법률을 이용해 진상을 알리다 (하) 24

법공부와 마음 수련, 기술 지원을 잘하다 48

거대한 시련 속의 신성한 큰 시험 59

【편집자 주】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혜편집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부님 평어

[명혜망] 최근 선원(神韻)에 기부하고 싶어 하는 일부 수련생들이 인터넷에서 선원에 대한 기부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한 웹사이트들을 찾아 방문하고 있다. 이들 웹사이트는 기부자의 개인정보, 은행 계좌번호 혹은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하고 기부금도 받고 있다. 하지만 선원은 어떠한 웹사이트, 회사 혹은 단체에도 기부금 수수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선원은 또한 이들 웹사이트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기부금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 더 이상 이들 웹사이트에 기부금을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

선원 사무실

2025년 12월 2일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요즘 사람들은 품행이 너무 좋지 않다!

사부 리홍쯔(李洪志)

2025년 12월 2일

각지 수련자는 후보 현지판 편집 제작을 중시해 말아주기 바란다

글/ 명혜 간행물팀

[명혜망] 매주 발표되는 ‘명혜주보’의 지방판은 ‘명혜주보’의 연장선이자 현지화된 것으로, 각 성(省), 각 시(市)의 박해 폭로 소식을 위주로 하며, ‘명혜주보’ 통판과 배합해 배포함으로써 각지에서 박해 반대, 진상 알리기와 사람 구하는 데 아주 좋은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많은 지역의 지방판 후보가 다른 지역 수련자에 의해 편집 제작되고 있다. 비록 겉보기에는 현지 자료의 공백을 메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지역 수련자가 대신 만드는 것과 현지 수련자가 직접 만드는 것은 실제 효과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 다른 지역 수련자가 대신하는 것은 비록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박해 초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확실히 다른 지역의 일손 부족을 보완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길어지고 특히 정법이 끝에 가까워진 결정적 시각에 현지 상황을 잘 알지 못해 오히려 소식의 오보, 부정확함, 지연을 초래하고 진상을 알리는 시기를 놓쳐 사람 구하는 효과에 손실을 가져온다. 반면 현지 수련자가 직접 하면 현지 민중의 상황을 잘 알고 현지 박해 사례를 제때(심지어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편리하므로, 작성한 자료가 현지인들을 더 쉽게 감동시킬 수 있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정법시기의 대법제자는 모두 사부가 사람 구하는 것을 도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각 지역 대법제자는 그 지역 사람들이 구도 받을 희망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잘 수련하여, 이 전례가 없는 가장 위대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여야 하는바, 법 공부를 많이 하고 하루속히 성숙하여

사부의 중생구도를 도와야 한다!”(이탈리아 법회)

사람을 구하는 것은 대법제자 각각의 사명으로, 모든 지역의 대법제자는 마땅히 그 지역의 박해 반대, 박해 폭로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진상 자료를 편집하고 제작하는 것 역시 박해 반대, 사람 구하는 업무 중의 중요한 고리이므로, 다른 지역 수련자를 기다리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닦아야 할 것,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뤄서는 안 된다.

최근 발표된 명혜망 중국법회 교류 원고 중에서, 학력이 높지 않은 많은 수련자가 사람 구하는 필요성에 의해 독학으로 컴퓨터 전문가가 됐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한 노년 대법제자는 수련자의 도움 아래 몇 년에 걸쳐, 불법 박해를 당한 가족의 형사 재심 청구를 돕는 과정에서 감옥, 공안청, 성 정부, 정법위, 사법국, 기율검사위 등 각급 정부 관리에게 대면해 진상을 알렸고 수많은 인연 있는 사람을 구했다.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대법은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고 능력을 부여해 우리가 사람 구하는 중에서 해야 할 일을 완수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동시에 줄곧 인터넷상에서 다른 지역 자료를 편집해 온 수련자들도 단일한 편집 업무를 멈추고, 다른 지역 지방 주보를 편집하는 책임을 현지 수련자에게 돌려주며, 우선적으로 자기 지역의 사람 구하는 일을 잘하기 바란다.

각지 수련자는 지금부터 현지의 지방관 편집 업무를 인계받아 매주 일요일 전까지 명혜망에 투고하기 바란다. 투고 시에는 자신의 소재 지역을 명시하고, 자신이 현지 수련자인지 여부 및 개인의 기본 상황을 설명하기 바란다. 인계받는 사람이 없는 지역이나 투고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소재 지역을 알리기를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후보 지방관 게재를 중단할 것이다.

정법수련 최후의 단계에서 우리 다 같이 정진하고 정법노정을 따라가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파악해 착실하게 사람을 구하자.

남편의 억울함 호소하며 법률을 이용해 진상을 알리다 (상)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7년에 대법을 얻은 노년 대법제자입니다. 올해 78세입니다. 제22회 명혜망 중국법회 투고를 맞아, 대법 중에서 수련한 체험과 지난 몇 년간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을 이용해 진상을 알린 경과를 말했고, 수련생의 도움을 받아 원고로 정리해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1. 남편의 거대한 변화를 보고 나서 법을 얻다

처음에 직장의 파룬궁수련생 2명이 제게 파룬궁(法輪功)은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히 하는 데 신기한 효과가 있다며 아주 좋다고 추천해주면서 『전법륜(轉法輪)』과 『파룬궁』 등 책 몇 권을 주었습니다. 저도 책을 본 뒤 아주 좋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따라 사부님 설법 비디오를 3강까지 보았는데, 마침 출장을 가게 되어 중단했습니다. 돌아온 뒤에도 다시 배우지 못했는데, 당시 업무가 매우 바빴던 데다 평소 무신론의 영향을 받아 머릿속에 수련이라든가 신불(神佛)에 대한 개념이 없어 진정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배우라고 권했지만 그는 배우지 않았고 마작을 하거나 춤을 추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데만 바빴습니다. 1997년에 우리는 새집으로 이사했는데, 주변 환경에 아는 사람이 없어 평소 놀기 좋아하던 남편도 같이 놀 사람이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무료하던 차에 『전법륜』이라는 보서(寶書)를

보더니 집어 들고 넘겨보았습니다. 그는 책을 보다 보니 아주 신기하다고 느꼈고, 여태껏 이런 기이한 책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용히 하고 처음부터 한 페이지씩 보더니 전신전력으로 보았습니다.

3일 반이 지났을 때 그는 아랫배 부위에 파륜(法輪)이 도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주 호기심을 느꼈는데 아랫배 부위의 파륜이 정회전하고 반회전하는 것이 『전법륜』 책에 쓰인 것과 똑같자, 그제야 자기 아랫배에 파륜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사부님 법신께서 다른 공간에서 대법제자에게 넣어준 파륜의 에너지를 이쪽 신체가 느낀 것입니다).

남편은 4일간 문밖을 나가지 않고 조용히 책을 한 번 통독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책 속의 법리에 탄복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고덕대법(高德大法)임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가족이 불교를 믿었기에 그도 훈도를 받았는지, 파륜궁을 배우기 시작하자 매우 믿었고 마음에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체 변화가 아주 컸는데 『전법륜』을 본 지 3일 만에 담배를 끊었고 성격도 좋아졌습니다. 바로 이 변화 때문에 우리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파륜궁에 탄복했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목숨은 내놓아도 담배는 못 끊는 사람인 줄 다들 알았고,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면 아주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 그는 늘 배가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십이지장 궤양이라서 위 절제 수술을 받았고 위 5분의 4를 잘라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거듭 당부했고, 계속 피우면 몸이 망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알겠다고 했지만

끝내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파룬궁을 배운 후 3일 만에 담배를 끊었고, 제가 몇 마디 해도 화를 내지 않았으며 몸도 하루하루 좋아졌습니다.

남편의 심신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크게 변하는 것을 보고 저도 크게 감동했고, 이때부터 저도 진정으로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진수(眞修)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 부부는 20여 년간 수련하며 약 한 알 먹지 않고 신체가 모두 건강합니다.

2. 좋은 사람은 일생이 평안하다

1999년 박해가 발생한 후 저는 자주 진상 자료를 배포하러 나갔습니다.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을 알리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수련생과 함께 거리에 나가 자료를 배포했는데 우리는 떨어져서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수련생이 제게 다가와 누군가 자기를 미행하고 있고 전화까지 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버스를 타라고 했습니다. 마침 버스가 와서 그녀는 차에 탔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전화를 걸던 그 젊은이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저를 따라왔습니다. 한참을 걸었는데도 계속 따라오길래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좋은 사람은 일생이 평안하고 파룬궁수련생을 보호하면 복을 받아 장래에 좋은 벼슬길이 열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한 대 오는 것을 보고 타려는데 그가 갑자기 “이 사람은 파룬궁이다!”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머리에 쓴

모자를 신속히 벗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파룬궁을 연마하는 게 뭐가 어때서요? 난 일흔이 넘었는데 파룬궁을 연마해서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마침 버스가 섰고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이때 젊은이가 손을 들어 제가 탄 버스를 향해 “좋은 사람은 일생이 평안합니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저는 그의 외침을 듣고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었습니다. “좋은 사람은 일생이 평안합니다!”

젊은이는 원래 중공(중국공산당)에게 속아 파룬궁을 증오했었지만, 그날 대법제자가 알려준 몇 마디 진상을 명백한 일면이 알아들은 것이니 참 다행이었습니다.

3. 남편이 박해당하다

1999년 ‘7·20’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한 후 우리는 여전히 신앙을 견지하고 정의를 수호하며 세 가지 일을 확고하게 잘해왔습니다. 남편은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치소, 노동수용소에 불법 감금되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유랑생활을 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박해를 받았으며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 불법 감금되어 박해당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남편이 다시 경찰에게 납치됐습니다. 경찰은 공예 장신구를 만드는 조각기, 대법서적, 진상 자료 등 개인 물품을 강탈해갔습니다. 그 후 불법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련생의 도움으로 재판 전에 제가 위임장을 제출해 남편의 ‘친우 변호인’이 되어 변호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사전에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고, 법정에서는 그저 남편이 무죄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변론은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판사에게 증거 제시를 요청하자 판사가 ‘진선인(眞·善·忍)’이 새겨진 호리병을 가져왔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물건이 전통 미덕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숭고하고 선(善)을 드날리는 행위가 어떻게 범죄 ‘증거’가 될 수 있느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는 오히려 남편이 제작한 ‘진선인’이 새겨진 정교한 호리병 수량 등을 근거로 그가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 저는 공안부 39호 문건과 신문출판서 50호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남편은 8년이 넘는 억울한 불법 형을 선고받고 벌금까지 부과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남편은 항소해도 소용없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이미 전염병으로 도시 봉쇄가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도시와 아파트 단지가 봉쇄된다는 소식을 들은 수련생이 즉시 저를 찾아와 정기적으로 거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덕분에 수련생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참여해 돕게 된 수련생이 신속히 공의포럼(公義論壇)에 자문했고, 수련생과 상의 후 저는 항소를 결정하고 즉시 방법을 강구해 남편에게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수련생도 짧은 시간 안에 항소장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제 생각을 알고 기한 내에 항소 절차를 마쳤습니다.

남편의 항소가 성공한 후 즉시 2심 법원에 제가 친우 변호인이라는 위임장을 제출해 친우 변호인이 됐고, 계속해서 2심 법원에 우편으로 다음 문서들을 제출했습니다. 《열람 신청서》, 《공개 재판 신청서》,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접견·통신 신청서》, 《압수 물품 해제 신청서》, 《무죄 증거 조회 신청서》, 《강제 조치 변경 신청서》, 《구속 필요성 심사 신청서》, 《고

소장》(1심 법원, 공소인, 2심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 《변호 의견서》.

동시에 법원에 권선(勸善, 선행을 권하는)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구(區) 방범사무실(610)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박해를 반대하는 동시에 진상을 알리기 위해 2심 판사를 두 번 만났고 전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 2심 판사를 고소한 후 그는 말투가 온화해졌고 다시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공의포럼 수련생의 지속적인 지원과 수련생들의 도움으로 이때부터 법률 수단을 집중적으로 잘 활용해 박해를 반대하고 남편을 구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상을 알리는 수련의 길을 진정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4. 각급 각 부서에 법률 문서 우편 발송

집중적으로 법률 문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후, 주무 부서에 제출하는 것 외에도 관련 기관들에 동시에 참조 발송했습니다. 관련 기관에 문서를 우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서에 참조로 적힌 기관이 너무 많아 20~30곳, 때로는 40~50곳, 심지어 그 이상일 때도 있어, 국가급부터 지방까지 다 보내려니 좀 겁이 났습니다. 결국 그렇게 많이 보내지는 못하고 사건을 뒤집는 데 관계있다고 느껴지는 몇 곳을 골라 보냈습니다. 나중에 수련생이 참조 기관 몇 군데에 보냈냐고 물으면 저는 미안한 마음에 몇 군데만 보냈다고 했습니다. 수련생은 기관이 그렇게 많은데 왜 몇 군데만 보냈냐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NTD TV에서 어떤 사건(가족이 고소하는 바람에 변호사가 오히려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본 적이 있어서였습니다. 제 마음이 순식간에 요동쳤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수련생들과 여러 차례 교류한 후에야 저는 관념을 바꿨고 담력이 커졌습니다. 그 후로는 고소장 등 문서의 참조 부서대로 우편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은 사법 계통에 진상을 알리기 위해 정성껏 선별하고 준비한 10여 건의 문서를 함께 우편으로 보냈는데, 한 부당 총 200페이지에 가까워 우리는 이를 ‘종합선물 세트’라 불렀습니다. 한 번에 40~50부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의 그 사법국장은 사법 계통에서 전출되어 공인된 ‘좌천 부서’로 가게 됐고, 그 국(局)은 현지 정부가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꼴찌가 됐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그 계통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법률 문서를 모두 뚝뚝하게 EMS를 통해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편지를 보내러 갔더니 우체국 직원이 보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보내지 못하게 하다니 근거 서류를 내놔봐요. 무슨 근거로 못 보내게 하는 거죠? 전 통신의 자유가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파룬궁 내용이 있으면 안 보내줍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법률 조항을 내놔보세요. 우린 파룬궁 때문에 억울한 판결을 받았는데 파룬궁을 안 쓰면 뭘 씹니까? 당신들이 내 통신권을 박탈하는 건 위법이에요. 당신 책임자는 어디 있죠? 오라고 하세요.” 나중에 그들이 전화를 건 뒤에야 보내게 해줬습니다. 그 후로 제가 편지를 보내러 갈 때마다 우체국 직원은 자기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매번 보내게 해줬습니다.

나중에 저는 다른 우체국에 갔는데 이곳 직원은 아주 친절했습니다. 그곳 관리자는 “법률 문서는 변호사가 쓴 거니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마음대로 보내세요. 반동 구호만 아니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의 한 여직원은 자주 저를 도와 정리해줬는데, 제가 갈 때

마다 문서와 우편 목록을 주면 그녀가 입력을 도와줘서 저는 돈만 내면 됐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저를 돕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구출하기 위해 각종 법률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멈추지 않고 남편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상을 알렸습니다. 원래 희끗희끗하던 머리가 금세 하얗게 섰고 살이 순식간에 15~20kg이나 빠졌습니다. 몇 번은 심성 고비와 피로감 때문에 수련생에게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수련생과 교류한 후 법에서 깨닫게 되어 당일에 바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각종 법률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재심 청구, 민원, 제보, 고소 등을 진행했습니다. 권선 편지도 자주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편지 보내는 일과 관련해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문서를 보내던 그 시기에 제 자전거 바구니에서 자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펴보니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 보내는 편지』였는데 내용이 아주 좋아 보였고 마음이 격동됐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성(省) 정법위를 떠올렸고, 만약 그들이 이 진상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성의 파룬궁 수련생을 보호한다면 이는 공덕이 무량한 대단히 좋은 일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실명으로 성 정법위에 보냈습니다. 뜻밖에도 며칠 뒤 파출소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5. 중급법원 입안과에서 소장을 누가 썼냐며 아주 잘 썼다고 말하다

하루는 파출소에서 저를 불렀는데 그리 심각하지 않게 잡담하듯 제가 정법위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지, 자료는 어디서 났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편지 보낸 게 뭐 어때서요? 누가 제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둔 걸 보니 내용이 참 좋아서 성 정법위에

보낸 겁니다. 제가 12위안을 들여 그들에게 보여준 건데, 글이 아주 잘 쓰여서 제 돈 들여 보냈으니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볼 것이고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제가 무슨 법을 어겼나요?”

경찰은 또 물었습니다. “왜 각지에 그렇게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억울하니까요. 억울하지 않으면 누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편지를 많이 보내겠어요?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시시비비를 가려주길 바라고 또 우리를 도와주길 바라니까 그렇죠.”

이때 딸에게서 점심 먹으러 들어오라는 전화가 왔고, 부소장은 “아주머니, 먼저 가세요. 이따가 출력할 게 있으니 다시 와서 받아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오전에 갔는데 점심시간이 다 되어 그들 사무실은 이미 커튼을 쳐서 어둑어둑했습니다. 그가 서명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줄곧 제게 아주 공손하게 말하고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썼기에 그들이 쉬는 데 방해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과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했던 탓에 소홀히 하여 내용을 보지도 않고 서명하고는 한 부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그것은 『행정처벌결정서』였고, 처벌 사유는 놀랍게도 “우편 방식으로 중앙 정법위, 중앙 기율검사위 감찰위, 중앙 사무청, 모모 성 정협, 모모 성 정법위, 베이징 평파이신문사, 모모 시 공·검·법 부서에 파룬궁 선전 자료를 배포함. 해당 자료는 파룬궁을 선양하고 국가 법제를 비방하여 행정, 사법 업무를 교란함”이었습니다. 저에 대해 행정 구류 7일을 결정했으나 집행하지 않고 벌금 300위안을 부과하며, 기한 며칠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구 공안분국이 기관 질서 문란을 이유로 저를 소환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었으나, 제가 파출소에 갔을 때 그들은 말끝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온 뒤 수련생이 내용을 보고 나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출소는 나중에 ‘위’에서 내려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법위에 보내는 편지』는 익명 편지나 다름 없었고, 말투가 완곡하지 않고 직설적이어서 성 정법위에 좀 자극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 후 저는 해당 구청에 쓴 『행정처벌결정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청구서』에 서명 무효 성명을 적었습니다. 벌금 300위안은 나중에 파출소에서 달라고 하지 않았고 저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속히 구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청구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변호 의견서는 70대 노파가 영감을 위해 합법적으로 변호하고 재판에 대비하려고 쓴 것인데 관련 국가기관에 좀 보냈다고 행정, 사법 업무를 교란했다니? 천하의 웃음거리가 아닙니까?”

구청은 법정 재결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심판 기간 60일 내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 기간이 만료된 후 15일 내에 저는 시 중급법원에 직접 행정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시 중급법원 소송서비스센터 입안(立案, 접수) 창구에서 젊은 여직원이 한참을 보더니 소장을 들고 안쪽 방으로 들어가 상사를 찾았고 잠시 후 나왔습니다. 또 한참 지나 안에서 상사가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이 고소장은 누가 써줬습니까? 아주 잘 썼네요. 하지만 공안국을 찾아가 협의해서 해결하세요.”

6. 사람들에게 남편이 박해당한 관련 진상 자료 및 법률 문서 배포

남편이 잡혀간 후 수련생들이 박해를 폭로하는 글을 써서 명혜망에 올리면 저는 이 자료들을 짚어지고 가서 배포했습니다. 현지에서 발생한 실제 사실이라 사람들은 제목만 봐도 읽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때로는 등 뒤에 짚어지고 앞에는 안고서 두 보따리나 되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배포했습니다. 젊은이를 만나면 말했습니다. “자료 한 부 줄 테니 판사가 되어 한번 봐봐요. 어떻게 판결할지.” 젊은이들은 기쁘게 받아갔습니다.

하루는 길가에 차가 서 있고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료 한 부 줄 테니 한번 판사가 되어 봐봐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전 공안국 사람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공안국 사람이면 뭐 어떤가요? 당신들도 사람 아닙니까? 제가 나쁜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건데 일 없으면 한번 보세요.” 그는 받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항소한 후 2심을 위한 변호 의견서가 준비됐습니다. 저는 또 이 변호 의견서를 짚어지고 가서 배포했습니다. 이 변호 의견서는 공의포럼 법률 전문가와 수련생이 저를 도와 써준 것으로, 법률적 각도에서 파룬궁 수련이 합법이고 파룬궁 박해가 유죄임을 조목조목 아주 명확하게 밝혔기에, 인연 있는 사람이 이 문서를 본다면 진상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널리 참조 우편을 보내는 동시에 거리를 누비며 직접 인연 있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7. 각급 각 부서 책임자를 찾아다니며 진상 알리기

과거에 저는 밖에서 진상을 알리고 매일 몇 명을 탈퇴시켰다고 하며 집에 와서 흐뭇해했습니다. 남편이 불법 체포된 후로는 공검법(공안·검찰·법원)에 진상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리에서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하는 것만큼 큰 성취감은 없더라도, 만약 공검법 인원이 진상을 알고 더는 박해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루는 한 수련생이 제게 어느 파출소 근처에서 자료를 배포하다가 신고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파출소에서 수련생은 소장에게 진상을 알리려 했는데 소장이 진상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 수련생 중에 누가 당신에게 진상을 말한 적이 있냐고 직접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고, 누구냐고 묻자 A라고 했습니다. A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고 변호 의견서 등 문서를 파출소에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그 파출소장은 수련생에게 “가세요. 앞으로 거긴 가지 마세요. 거긴 감시카메라가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이 피드백을 듣고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고 파출소장이 진상을 알게 되어 우리 수련생을 박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절대다수의 공검법 사람들은 그저 위에서 주입하는 거짓말을 듣고 잘못된 명령을 집행할 뿐, 파룬궁수련생이 직접 그들에게 진상을 말해주는 것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성급(省級) 감옥관리국, 사법청, 성 정부 관리들은 더욱 진상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진상을 알릴 수 있다면 당장은 삼퇴하겠다고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분별하게 되고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만

약 진상을 알게 된다면 더욱 좋은 일로서, 그들 자신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박해도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고위층 간부들은 일반적으로 상급이 내려보내는 소위 ‘업무’만 받아들이고 그 환경에서 동급이나 상하급 직원들만 주로 만나기에 일반 주민을 접할 기회가 드뭅니다. 우리가 평소 그들을 찾아갈 구실이 없는데 이번에 가족에게 일이 생겼으니 마침 이를 계기로 그들을 찾아가 진상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저는 용기를 내어 기차를 타고 100km 넘게 떨어진 성도(省都)로 가서 관련 각 부서 책임자를 찾아가 제 남편의 실제 상황을 근거로 진상을 알렸습니다. 또 기차를 타고 수백 km 떨어진 감옥 소재지로 가서 감옥 책임자, 검찰원 주재 감옥팀을 찾아가 제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현지 시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공안국, 정법위, 사법국, 검찰위 등 부서를 찾아가 제 남편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탄복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찾아갈 때 종이에 명혜망에 있는 네 마디 말을 많이 적어서 갔습니다. 그들에게 나눠주면 그들은 받은 뒤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은 감옥관리국에 갔는데 처음에 직원이 저를 난처하게 하고 아주 사납게 굴었지만, 끈기 있게 진상을 알리자 그들도 그렇게 사납게 굴지 않았습니다. 사법청에 가서 책임자를 찾을 때 남편이 감옥에서 박해받은 일을 말하자 옆에 있던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범죄자니까 그렇게 대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누가 범죄자입니까? 지금 파룬궁이 위법이라는 법률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이 법적 근거를 내놔볼래요? 우린 억울해요.” 그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사회보장국이 남편에게 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일 때문에 법원을 찾아가 법관에게 말했습니다. “연금은 원래 우리 돈이고 우리에게 줘야 하는 건데 무슨 근거로 당신들에게 반환하라는 겁니까? 은행과 마찬가지로 내가 은행에 넣은 돈을 은행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회보장국이 주는 연금은 우리가 평생 일하며 점차 쌓은 돈이고 은퇴 후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한 것인데, 사람이 살아있는 한 지급을 중단하면 안 되죠. 당신들이 이 돈을 회수하려는 건 위법입니다.”

법관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만 말씀하세요, 그만요. 이건 사회보장국 일이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안 찾으면 누굴 찾습니까? 당신들이 일부러 감옥까지 가서 제 남편 면전에서 선고하고, 남편에게 이미 지급된 연금을 중단하고 회수하겠다는 제 남편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압력을 주는 겁니까? 당신들의 이 행위가 그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켰는데 당신들이 한 짓이 뭐니까! 오늘 제가 당신들을 찾아온 건 이렇게 하는 게 위법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옆에 한 젊은이가 보이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아직 젊으니 좋고 나쁨을 분별해야 해. 그래야 좋은 미래가 있지. 자네가 늘 그들을 따라 시비도 모르고 일하다간 끝장이야. 법원이 뭐 하는 곳인지 알아야지.” 젊은이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연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들도 더는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1심 판사를 고소하기 위해 시 중급법원에 가서 책임자를 찾았는데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고 거기서 그를 기다리면서 젊은이 몇 명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습니다. 한창 말하고 있

는데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만하세요. 이리다 우리도 아주머니 따라 파룬궁 연마하겠어요. 저기 우리 상사가 오네요!” 그 젊은이들은 곧바로 저와 말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가 오는 것을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왜 입안(사건 접수)을 안 해주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안 해주는 거죠?” 그가 말했습니다. “최근 문건에서 파룬궁은 입안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 문건 좀 내놔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문건을 꺼내서 제게 보여달라고요.” 그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문으로 들어가더니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8. 원고가 되어 시 공안국, 시 정부를 고소하다

2021년 상반기, 박해를 반대하기 위해 시 공안국에 《정부 정보 공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 남편의 시 구치소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시 공안국은 회신에서 관련 상황이 정부 정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하게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 저는 시 정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시 정부(지급시)는 행정심판 결정서에서 원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뒤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는 시 공안국, 시 정부였고 법원은 기한이 지났다고 입안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우체국에 가서 문서 우편 발송 현황을 출력해왔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법원 소환장을 받아 2021년 말 해당 시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일부러 좋은 옷을 사 입고 갔는데 이는 대법제자의 이미지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시누이가 저를 수행해 법정에 들어와 제 물컵과 자료를 들어주며 저를 돌보는 보조인 명목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원고였기에 우리 좌석이 피고 쪽보다 높았는데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공개 재판이었지만 방청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10여 개 현(縣)의 수련생들이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현장에 와서 발정념을 했다고 합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시장 대리인(무슨 주임), 시 공안국장 대리인(법제처 경찰 2명), 그리고 시 정부와 시 공안국을 대표해 출석한 변호사 2명 등 총 5명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 공안국 법제처 경찰이 일어나더니 원고가 어찌고저찌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판사가 말을 끊고 제지하며 “당신들은 피고입니다”라고 알려주며 손짓으로 먼저 앉게 하고 원고에게 먼저 말하라고 했습니다. 늘 원고 노릇만 하던 경찰은 순간 멍해지더니 머쓱하게 앉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제 마음에 정념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1 대 5로 싸웠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공의포럼 수련생의 도움으로 수련생이 일찌감치 자료를 준비해줬고, 절차는 무엇이며 어느 단계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발생 가능한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미 다 써주었기에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읽기만 하면 됐습니다.

전체 재판 시간은 약 1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정정당당하게 진술하고 이치에 근거해 힘껏 논쟁하자, 상대방 주임과 경찰, 변호사 두 명은 오히려 매우 웅색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적 박해 운동의 피해자이지만 우리는 중공이 우리에게 강요한 죄명을 인정한 적이 없고, 남보다 못하다고 느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원고석에 설 수 있었으니 더욱 이치에 닿고 당당해야 했습니다. 재판 후 시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올케, 정말 말 잘하네요.”

재판 후 저는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재판 녹음녹화에 관한 약간의 규정’에 따라 법정에서 재판 녹화, 녹음 복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매우 긴장하며 각종 이유로 핑계를 대고 끝내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생과 공의포럼의 지지가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느꼈고 변호사 비용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약한 변호사 비용은 진상 내용이 삽입된 법률 문서를 널리 우편 발송(참조)하는 데 써서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데 더 유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저는 중공이 법률을 이용해 우리를 박해하니 우리도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하고 진상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법률을 잘 활용해 권리를 수호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그들이 위법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위법을 알면서도 고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원고석에 서서 진상을 알릴 기회가 있겠습니까? 결과가 어떠하든 어쨌든 지금 당신들 공안국, 시정부가 피고입니다. 비록 법원이 결국 정의를 견지하지 못하고 공안과 정부의 원 결정을 유지했지만, 저는 이 일을 이용해 법정에 있던 정부 공직자, 변호사, 판사 등이 모두 조용히 제 발언을 다 듣게 했고 원고석에서 진상을 알렸습니다.

9. 구 610 주임의 변화

박해 중에서 우리는 실제로 막후에서 암암리에 박해를 지휘하는 것이 610(방범사무실)이고 그들은 통상적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심 판사가 사당(邪黨)의 ‘××구위원회 방범사무실’이 발급한 ‘증명’을 채택해 ‘감정 소견’으로 사용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매우 사악한 증명으로, 압수해간 자료 등 소위 증거가 ‘사교(邪教) 선전품’임을

증명해 소위 증거를 『형법』 300조와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소위 ‘감정 소견’은 감정인 서명도 없고 감정 기관 번호도 명기되지 않았으며 감정 전용 도장도 찍혀있지 않았는데, 방법사무실 자체가 합법적인 감정 기관이 아닙니다. 본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 증명은 명백히 불법이었습니다.

수련생의 제안으로 저는 구 방법사무실을 찾아가 방법사무실 주임 B를 만났습니다. 이름을 물어도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사무실 사람은 확실히 다른 곳 사람보다 기세가 등등하고 사악한 기운이 강했는데, 몇 명이 저를 둘러싸고 큰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그들도 파룬궁수련생 가족이 감히 찾아올 줄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행패를 부려도 저는 두렵지 않았고 그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 이치를 따져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사악한 기운이 꽤 강했는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공안국 사람을 불러 잡아가게 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법제자의 정기(正氣)로 그들을 제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라고 하세요, 날 잡아가게 해보라고. 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 달려온 건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사람은 하고 하늘은 보고 있으니 천리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마세요. 보아하니 다들 젊은데 장래에 만약…… 되면 어찌려고 그러나요?” 순식간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둘씩 굳어져 버렸습니다.(계속)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남편의 억울함 호소하며 법률을 이용해 진상을 알리다 (하)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전편에 이어) 방범사무실(610) 주임 B는 그 광경을 보고 즉시 제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방범사무실의 C에게 저를 녹화하게 했는데 마치 범인을 심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 만두라고 하며 말했습니다. “B 주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 모습은 녹화할 수 없어요. 당신들은 내 초상권을 침해할 수 없어요.” 태도가 매우 단호하자 그들은 더는 녹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해 간 14가지 사교(邪教)에 관한 39호 문건을 꺼내 그들에게 보라고 했지만 그들은 보지 않았고, 자기들도 다 있으니 안 봐도 된다고 7월 22일 문건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천안문 분신 사건을 언급하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가짜라는 걸 다 아는데 당신들도 믿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그중 몇 가지 허점을 말해주며 그건 연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한참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호리병에 ‘진선인(眞·善·忍)’을 새겼다는 이유로 8년 넘는 형을 선고받았는데, 누가 이 작은 호리병을 보고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상해를 입었습니까? 우린 너무 억울합니다!...”

나중에 그 방범사무실 직원 C가 말했습니다. “다 말씀하셨으면 어서 가세요.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건물에는 곳곳에 감시카메라가 있어요.” 나중에 C가 저를 배웅해 아래층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건물 안에서, 원래 제 남편에게 증명서를 써준 방범사무실

주임 K의 이름을 알아냈는데 그는 이미 애위판(愛衛辦, 위생 운동 위원회 사무실)으로 전근 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애위판 전화번호를 찾아 그에게 전화해, 왜 제 남편에게 그런 증명서를 써줘서 남편이 8년 넘게 억울한 판결을 받게 했냐고 따졌습니다. 그는 자기는 이미 전근 왔으니 상관없다며 지금 주임인 B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방법사무실에 가는 것은 확실히 다른 곳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사악한 기세 때문에 저는 매우 괴로웠고 수련생에게 방법사무실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수련생의 격려로 나중에 저는 다시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변호 의견서와 기타 문서가 생긴 뒤 저는 늘 문서 몇 부를 골라 그들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방법사무실 주임 K와 B를 고소했습니다. 나중에 방법사무실에 갔을 때 한번은 제가 면전에서 이 고소장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의외였던 것은 그들이 펄펄 뛰기는커녕 오히려 예전의 그 사악한 기세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날 평평거리던 몇 사람을 포함해 모두 온화하게 저와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직접 방법사무실 주임에게 주면 그가 다 받았고, 받은 후에는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구(區) 방법사무실은 정법위 사무실 건물 안에 있었는데, 한번은 남편의 병보석 문제로 방법사무실 주임 B를 찾아갔으나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건물 안을 배회하다가 아래층의 한 사무실로 가서 물어보며 검사검사 남편이 박해당한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진지하게 제 말을 계속 듣더니 나중에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 방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고맙다

고 한 뒤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부서기 사무실이었는데 부서기는 여자였고 말투도 비교적 좋았습니다. 제가 상황을 말하자 그녀는 B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B가 그녀의 사무실로 오자 제 면전에서 B에게 제 일을 처리해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B의 사무실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갈 때 B는 저를 아래층까지 배웅하며 경비원에게 “아주머니가 앞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바로 올라오시게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제 자전거가 안쪽에 있어 다른 자전거들에 막힌 것을 보고 그녀는 제 자전거를 꺼내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방범사무실에 가는 것은 마치 이웃집에 마실 가는 것 같았고 가고 싶으면 갔으며 사상적 부담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B도 제게 온화하고 존중하며 말했고 방범사무실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 재심 청구를 위해 방범사무실 증명서의 불법성을 추가로 입증하고자 성 사법청에 정부 정보 공개를 신청하여, 구 방범사무실이 성 사법청에 등록된 사법 감정 기관인지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성 사법청은 사법청의 사법 감정 기관 등록 명단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나중에 사법청의 답변도 다른 문서와 함께 방범사무실 주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발생한 몇 가지 일에서 저는 그가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감옥 부감옥장 L이 남편의 장례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를 찾았는데, 한동안 매우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한번은 우리와 대화할 때 사악한 기세가 가득하여 어떤 말은 매우 악랄하고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 정법위와 우리 지역 정법위를 찾아갔으며 전 성(省)의 힘을 동원해 해결하겠다 했고 대법을 직접 공

격했습니다.

이틀 뒤 제가 방범사무실에서 B 주임에게 진상을 알리고 있는데 감옥 부감옥장 L 등이 또 우리 지역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 감시 위치 추적하고 있지 않나요? 위치 추적해서 찾아오시죠.” 그들의 위치 추적 미행이 대단한지 잠시 후 그들이 B 주임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방범사무실 사무실에서 대화했습니다.

감옥 측이 다시 제게 시신 화장을 강요하자 제가 말이 좀 급해졌고 무심결에 제게 불리한 말을 두세 마디 했는데, B 주임이 옆에서 살짝 저를 건드렸습니다. 말실수하여 그들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말라고 일깨워주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또 감옥 측에 말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떻게 하든 이 일 처리는 아주머니가 만족하게 해야 합니다.” L의 이틀 전 사악한 기세는 마치 순식간에 꺾인 듯 방범사무실에서는 감히 지나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번은 B 주임이 제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감옥에서 또 찾아오면 제게 알려주세요. 저도 가서 그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옥 책임자가 또 저를 찾으러 왔을 때 제가 B 주임에게 알리자 그가 정말로 왔습니다. 보아하니 그는 준비하고 온 듯했는데 마치 상사가 훈시하듯 오랫동안 말했고 모두 제 편에서 말해주었습니다. 한 생명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매우 기쁜 일입니다.

우리 시에는 몇 개 구가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수련생들은 B 주임이 있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박해가 훨씬 약하다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똑같이 대면해서 진상을 알려도 다른 구는 단번에 3

년을 선고하는데 이 구는 때로는 바로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행정 구류 며칠만 살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인접 구에서는 때로 1년에 수련생 몇 명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데, 이 구에서는 몇 년간 수련생이 재판받은 적이 없습니다.

10. 홀로 감옥에 가서 문의하다 모욕당하자 현지 파출소장이 먼 길을 찾아와 상황을 설명하다

2심에서 원심판결이 유지된 뒤 2020년부터 남편이 감옥에 불법 감금됐습니다. 1년에 단 세 차례 전화만 허용됐고 그 후로는 완전히 연락이 끊겨 온 가족이 매우 초조해했습니다. 저는 제가 감옥에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들 반대하며 제가 나이가 많아 혼자 가는 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도저히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아이들 몰래 홀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도착하니 문지기가 사무실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무슨 일입니까?”라고 묻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제 남편 A의 병세와 병보석 요청 건으로 감옥 병원 D 원장을 찾으러 왔습니다.” 제가 성씨를 묻자 그는 이곳 E 주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E 주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파룬궁을 연마합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저는 곧이어 남편과 통화하고 싶다며 건강 상황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E 주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제가 또 감옥장을 만나겠다고 요구했으나 E 주임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문으로 들어가길래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가 위층으로 올라가더니 사람을 시켜 복도를 지키게 하고 저는 올라가지 못하게 했

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안에서 몇 달째 전화도 소식도 없어서 설에 우리 가족은 모두 제대로 지내지도 못했어요. 제 남편은 나이도 많은데 억울하게 고난을 겪으며 안에서 먹는 것도 부실하고 영양도 따라가지 못할 텐데 몸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만약 그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전 어떻게 살아요!” 말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올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감옥경찰 F와 다른 몇 사람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는데 당시 그들의 태도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장경찰인지 무슨 경찰인지 모를 사람이 들어오더니 제 코를 가리키며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날 때리고 잡아가기라도 할 건가요? 마침 내 영감이 여기 있으니 날 잡아가면 그이랑 같이 있겠네요!” 옆에서 사람들이 말린 덕분에 그는 손찌검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파출소 사람이라 칭하는 몇 명이 이베코 승합차를 타고 오더니 제 조서를 꾸미고 신분증을 조회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처럼 일흔이 넘는 비무장 노인을 상대하는데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감옥 E 주임 일당이 이토록 야만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보고 불법 감금된 남편이 몹시 걱정됐습니다.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감옥 소재지 공안국에 『정부 정보 공개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해, 파출소 경찰이 감옥에서 제 조서를 꾸미고 조사한 일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며칠 뒤 현지 파출소장이라 칭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말투가 아주 온화했습니다. 그들은 정보 공개 신청을 받았고 조사 중이라며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길래 제가 대략 말해주었습니다.

또 10여 일이 지나 그 파출소장이 전화를 걸어와 자기들이 업무차 제가 사는 도시에 왔는데 저와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이 갇힌 감옥이 바로 그들 파출소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먼 길을 왔으니 쉽지 않았겠다 싶어 즉시 가서 만났습니다. 대화 내용은 정부 정보 공개 신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보 공개 신청을 받았고 상부에서도 매우 중시하고 있어 특별히 직접 제게 설명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대화 중에 그는 그날 제가 만난 파출소 경찰이라 칭하던 사람들은 그들 파출소 소속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만난 파출소 경찰이라 칭하던 사람은 이름이 ××이고 경찰 번호가 몇 번인데 그는 감옥의 감옥경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경찰과 그들 공안 경찰의 경찰 번호는 확연히 다르며 공안 경찰 번호는 6자리이고 감옥경찰 번호는 5자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날 간 건 정말 우리 파출소 사람이 아닙니다. 차도 우리 차가 아니고요.”

그 후 저는 성 감옥관리국과 감옥에 이 일을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끝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감히 그렇게 사악하게 저를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감옥에 가서 또 한 가지 상황을 알게 됐는데, 2020년 말부터 반년 동안 남편과 우리의 면회, 통화, 화상 통화, 서신 왕래 권리가 완전히 불법적으로 박탈됐고, 그 이유는 그가 ‘전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상 통화 비용 200위안을 입금했으나 1년이 되도록 화상 통화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권리들은 완전히 박탈됐습니다.

감옥이 접견 불허 등 남편의 합법적 권리를 박탈할 때 주된 구실 중 하나가 ‘전향’하지 않았다는 것이었기에, 저는 성 감옥관리국에 정보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뒤이어 그들의 답변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심판청구서에서 저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감옥법』은 감옥경찰이 피고의 법에 따른 재심 청구 권리를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는 죄를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말하고 제출한 법률 문서는 개조를 방해한 상황이 없으며, 즉 한 사람이 도덕에 위배되거나 법률을 위반하도록 방해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법에 따라 피고의 합법적 권익을 옹호했을 뿐입니다.”

“전향은 곧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A가 감옥에 갇혔으나 그는 무죄이자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역 인원으로서 인격을 모욕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옥법』 제7조는 피감독자의 인격은 모욕받지 않으며 그 신변 안전, 합법적 재산과 변호, 재심 청구, 고소, 고발 및 기타 법에 따라 박탈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A의 권리이며, 감옥경찰은 마땅히 법에 따라 피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죄 인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동시에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감외(監外) 집행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법률 규정도 없습니다. 전향이 감외 집행의 조건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에 권한이 없으면 금지된 것입니다.”

성 감옥관리국은 답변하지 않았고 저는 이에 대해 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저는 그들의 위법한 점을 엄

정하고 바른 말로 지적하는 동시에, 대법(大法)은 중국에서도 완전히 합법이며 제 남편 A의 행위도 완전히 합법임을 논술했습니다. 나중에 감옥관리국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처음에는 탄소리를 하다가 대화 끝에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문서를 아주 잘 쓰셨네요…” 본 시 사법국에도 참조로 보냈는데 본 시 사법국 직원도 전화를 걸어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11. 남편의 불행한 사망

남편이 감옥에 불법 수감된 후 저도 그에 따라 감옥, 사법 계통에 문서를 제출했고 기타 문서도 감옥에 참조로 우편 발송했습니다.

남편은 옥중에서 장기간 극심한 빈혈 상태에 있어 한쪽 눈은 거의 실명됐습니다. 전문의에게 자문하니 장기적인 빈혈은 장기 부전, 특히 심부전을 직접 유발하여 생명이 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옥, 감옥관리국, 사법청에 우편으로 『○○○ 생명 안전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행정소송 제기에 용이하도록 직무 이행 신청서임을 명시했습니다.)

저와 딸은 여러 차례 감옥, 성 감옥관리국을 찾아가 남편의 병보석 처리를 요구하며 각종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1년 넘게 미루며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원서를 썼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전, 감옥에서 병보석 수속을 담당하는 두 사람이 제가 사는 곳에 왔는데 이미 점심때였고, 그들은 바로 제 딸과 함께 구 사법국에 들어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돌아와 전하길, 처음에 사법국 사람이 아주 거만하게 굴며 제가 억지를 부린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이 저를 가라고 했을 때 제가 가지 않은 것을 가리킨 듯합니다.) 제가 그녀에게 자료를 줬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전 문서 몇 부를 그녀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나중에 감옥 경찰이 말을 끊으며 “우리는 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거니 그 이야기는 그만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제 딸 말로는 감옥에서 온 사람이 말을 아주 잘했고 병보석 수속을 성사시키려고 매우 애를 썼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결국 병보석 문서 서식에서 막혔다고 합니다. 감옥 경찰관은 자기들이 늘 처리하는데 전 성 각지에 다 처리해줬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유독 이곳에서만 이렇게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구 사법국은 계속 자기들 주장을 고집하며 현지 감옥에서 발급한 문서를 꺼내 이대로 써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온 사람이 할 수 없이 제 딸 면전에서 그들의 감옥장 J에게 전화를 걸었고, J는 사법국 요구대로 고쳐서 다음에 고친 문서를 그들에게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제 딸은 감옥 측이 진심으로 병보석을 처리하려 하고 또 공정한 말도 좀 해주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감사해했습니다. 나온 뒤 제 딸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자 그들은 안 된다며 이전 우리보고 잘못을 저지르게 한 거라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감옥경찰이 제 딸에게 말했습니다. “감옥장 J가 특별히 당부했는데, 어머니가 아주 대단하시고 문서 작성 수준이 꽤 높으시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앞으로는 제발 그만 고소하시라고 전해드립니다.” 제 딸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엄마가 젊었을 때 천하를 돌아다니셨는데요. 우리집은 우리 엄마한테 의지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는 그 감옥장 J가 두세 달 뒤 전근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 측이 두 번째로 사법국에 왔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수속 부적격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반년 후 제 남편이 또 입원했으나 감옥은 줄곧 제게 전화하지 않았고 딸에게만 전화했으며, 동시에 저를 보살핀다는 명목으로 제 딸을 속여 제게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제가 알게 되어 병원 주치의와 과장에게 전화했더니, 의사는 제 남편이 이미 위독하여 위독 통지서를 세 번이나 보냈으니 빨리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너무 급해 즉시 감옥 병원장에게 전화해서 남편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위독해서 이미 가망이 없다고 들었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누가 당신에게 말해줬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묻지 말고 사실인지 아닌지나 말해봐요.” 그는 제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누그러져서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시죠.”

이튿날 저와 딸은 바로 출발했습니다. 2022년 전염병 기간이라 우리는 방호복까지 샀는데 도중에 더는 가지 못하게 하여 부득이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강경하게 요구하자 감옥은 최종적으로 특례 처리에 동의했고, 감옥 병원장 L은 우리에게 이튿날 남편을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처 출발하기도 전에 L이 우리에게 통지하길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감옥 측은 차를 보내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마지막 면회도 못 하게 하더니 이제 죽어서 말도 못 하는데 우리보고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그이가 무슨 말을 할까 봐 두려운 겁니까?”

감옥 측은 우리가 가지 않자 사람을 보내 저와 상의했습니다. 감옥 교육과장 H는 아주 거만하게 굴며 당장 화장하자고 했고, 제 때 처리하지 않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얼굴이 검게 변하는데 그때 가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화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 화장해 보시지! 내 남편이 영문도 모르게 옥중에서 죽었고 떠날 때 우리 가족도 현장에 없었는데, 이면의 일을 해명하지 않고 화장하겠다고?” 그는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제게 형편이 어려운지 묻더니 보조금으로 몇천 위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 퇴직 연금이 있어서 돈은 안 부족해요. 당신들이 내 남편 일을 해명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당신들이 내게 똑똑히 말해야 해요.”

그 교육과장 H는 또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남편에게 계란 국수를 해줬는데 자녀들이 돌보는 것보다 더 잘해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누굴 속이려 드는 겁니까? 당신들 감옥이 그렇게 많은 대법제자를 박해해 죽였는데 그이에게 잘해줄 수 있다고요?”

나중에 그들은 여러 차례 사람을 보냈는데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우리가 8~9천 위안을 주는데 당신에게는 좀 더 줘서 1~2만, 많아도 5만은 넘길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나랑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오지도 마시고요. 내가 파룬궁을 수련했으니 망정이지 예전 성격 같았으면 벌써 몽둥이 들고 당신들을 때렸을 겁니다. 지금 보니 당신들도 거짓말의 피해자고 이용당하는 사람들이니 어서 진상을 아세요. 안 그러면 결과가 아주 안 좋을 겁니다.”

마지막에 사법 계통의 한 책임자 G가 나섰는데 그는 감옥장의 상사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위독해 통지서를 세 번이

나 내렸다면서 왜 우리에게 한 번도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감옥은 뭐 하는 겁니까? 직무 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엔 필시 원인이 있을 테니 전 끝까지 추궁할 겁니다.” 그 후 그들은 남편 시신을 장례식장에 냉동해두었고 한동안 감옥 측에서는 아무도 저를 찾아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12. 갑작스러운 청문회, 사악한 기세가 하늘을 찌르더니 모두가 기피하는 망신스러운 일이 되다

여러 차례 요구하고 신청한 끝에 2023년 10월 중순, 저는 남편의 감옥 수감 당시 CCTV 영상을 열람 신청하기 위해 특별히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성껏 편집된 10여 분짜리 영상 조각 몇 개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전체 영상을 요구했으나 감옥 측은 이미 영상을 삭제하고 이 10여 분만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이 심상치 않고 필시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판단하여, 돌아온 후 『정부 정보 공개 신청서』를 제출해 법에 따라 정부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줄곧 응답이 없었습니다.

검찰원 주재 감옥팀에 전화하고 허베이성 감옥관리국에도 전화해 원본 전체 영상 열람을 재차 신청하려 했으나, 한 달 넘게 적어도 27차례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두 달 동안 299차례 전화해서 13번 연결됐지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찾지 못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저는 기록해두었습니다.

2023년 말, 감옥 병원장에게서 전화가 와서 감옥장이 며칠 뒤 저를 만나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와 아이들은 그들이 정한 호텔 회의실에 가서 만났습니다. 가서 보니 안에 이미 10여 명이 앉아 있었고 현장에는 카메라도 설치되어 렌즈가 우리에게 배정된

좌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저와 아이들에게 청문회를 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듣자마자 화가 나서 당장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딱 보니 미리 준비된 홍문연(鴻門宴, 함정)이었습니다. 미리 알리지도 않고 우리를 허둥지둥하게 만들고는, 전체 영상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기습적으로 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청문회를 연 것입니다. 저와 동행한 사람은 두 딸과 생질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기왕 왔으니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뭘 하려는지 보자, 나는 대법제자인데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하며 우리 지역 시 정법위 조사연구원이라고 했고, 감옥에서 온 4명과 우리 지역 6명, 인민대표대회 대표, 정협 대표를 일일이 소개했는데 구 방법 사무실 주임 B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사회자의 발언을 끊고 말했습니다. “사회자 양반, 일단 말하지 마세요. 방금 소개한 사람 전 하나도 기억 못 하겠으니 기다리세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한 사람씩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적게 했습니다. 사회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당신들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가 저를 막을 수 없음을 알고는 부득이 동의했습니다.

제가 한 명씩 이름, 전화, 소속, 직책을 묻자 그들은 마지못해 써주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에게 이름을 묻자 그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서더니 연신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 적지 마세요. 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예요.” 저는 우스웠습니다. ‘변호사가 뭐가 무서워서 그러지?’ 보아하니 이 변호사도 그들이 하는 이 일이 떳떳

하지 못함을 알고 있고, 그들을 따라온 것조차 불명예스럽게 여긴 듯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줄곧 파룬궁수련생이 배후에서 저를 돕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뒤 감옥 사람들은 뒤에서 바로 제 생질을 에워쌌는데 그가 파룬궁수련생이라고 생각하고 기어코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제가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기록하자 그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났는지 그들은 순식간에 자기들 진영이 어지러워져 어쩔 줄 몰라 했고 아무도 제 생질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질은 전날 꿈을 꿔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계속 종이를 들고 쫓아오며 서명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감옥 병원장은 주로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감옥 측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병보석을 추진했는지 이야기하며 그들은 책임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감옥 병원장은 매우 교활하고 위선적이었습니다. 예전에 감옥에서 우리와 주로 상대하던 사람으로, 전화와 만남이 수십 번은 될 것입니다. 감옥은 남편과 딸의 통화를 세 번만 허용했고 우리를 면회시켜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통조림처럼 밀폐되어 있다고 생각했기에 감옥 안의 일에 대해서는 자기들 말하는 대로라고 여겼습니다.

감옥 측은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크게 의외라고 느낀 것은, 이 감옥 병원장의 발언에 대해 저와 둘째 딸이 책상을 치며 일어나 면전에서 그의 거짓말을 폭로한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자신과 감옥을 변호할 수 없게 만들자 그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며 사전에 원고에 준비한 내용만 계속 반복해서 읽었는데, 식견 있는 사람이 들으면 앞뒤가 맞지 않아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 내 치료 기록을 제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 측이 아무리 치밀해도 빈틈은 있었습니다. 저의 끊임없는 요구와 제가 가족을 데리고 직접 감옥을 찾아가 검찰원 주재 사무실을 찾은 후에야, 감옥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치료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네 차례 입원 진료 기록 사본을 제게 주었습니다. 네 번 입원했고 치료비는 10여만 위안이 들었습니다. 감옥은 이것이 그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했음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수련생이 이 진료 기록에서 저와 병원 의사의 통화 녹음을 결합해 문제를 분석해냈다는 점입니다.

수련생이 분석하길 전액 자비 부담 의료비 14만 위안은 언뜻 들으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입원 기간의 70%와 치료비의 85%가 남편 A가 세상을 떠나기 전 1주일 간격으로 입원한 마지막 두 차례에 쓰였습니다.

마지막 두 차례 입원 때 주로 무슨 치료를 했을까요? 입원했던 병원 과장은 만약 감옥에서 보낸 게 아니라 일반 환자였다면 분명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병의 말기 환자는 전혀 치료할 수 없고 베이징에 가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입원시킨 것은 주로 환자의 고통을 좀 줄여주고 최대한 생명 시간을 연장하여 가족이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입원은 남편 A의 질병에 대한 진정한 치료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앞선 두 차례 치료에서는 퇴원 시 의학 지표가 여전히 위험 단

계였는데도 퇴원했습니다. 딸은 그들을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당신들 이걸 전혀 치료가 아니에요. 감기 걸려 입원해도 이것보다는 많이 쓰겠네요.”

원래 그들이 청문회를 연 목적은 1만 위안 배상으로 이 일을 종결지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10여 명이 와서 이런 기세로 우리를 위협하고 공갈하여 배상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려 했지만, 우리가 갑자기 그들을 반박해 말문이 막히게 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또 5만 위안으로 일을 끝내자고 했으나 저와 가족은 엄중한 말로 거절했습니다.

일이 끝난 뒤 우리는 감옥이 벌인 이도 저도 아닌 불법 청문회에 대해 감옥, 성 감옥관리국, 사법청에 『정부 정보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이 감히 답변하지 못하자 우리는 또 성 정부에 『행정심판청구서』를 보냈고 그래야만 사법청의 답변을 독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감옥 쪽에 전화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민원 제보를 했지만 아무도 감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동시에 저는 현지 정법위의 그 청문회 사회자를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사회자는 사실 우리 지역 시 610(방범사무실) 부주임이었습니다. “당신이 사회를 맡았으니 당신이 책임져야 하고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며 내 진상 설명을 들어야 해요.” 청문회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번씩 반드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입구 당직자가 안에 전화를 걸더니 그가 출장 갔다고 알려줬고, 나중에는 또 회의에 갔다고 했습니다. 반년 동안 적어도 20여 차례 찾았지만 한 번도 감히 나와서 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매번 이런저런 일로 없었

습니다. 더 나중에는 그가 퇴직했으니 다시는 찾지 말라고 직접 알려줬습니다. 제가 누가 그의 업무를 인계받았냐며 그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인계가 없다고 했고, 두 달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도 그의 일을 인계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원래 그들은 사악한 기세가 하늘을 찔러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결국 흠투성이가 되어 모두가 기피하는 망신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 방법사무실 주임 B는 현장에서 감옥을 돕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3. 온갖 수단으로 위협하던 감옥이 끊임없이 애원하며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다

저는 끊임없이 성 감옥관리국, 성 사법청을 찾아갔습니다. 나타나는 각종 상황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문서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2024년 5월, 감옥에 새로 부임한 부감옥장 L이 왔는데, 이전에 감옥이 회피하고 무시하던 태도를 싹 바꾸어 매우 친절하게 굴며 입만 열면 아주머니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여러 차례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제가 감옥에 갈 때마다 가족으로서 감옥장을 만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명혜망의 교류 체험을 봐도 감옥장을 만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기간에 이 부감옥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감옥은 제가 사는 도시에서 수백 km 떨어져 있는데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주일에 세 번이나 왔습니다. 한번은 이틀 전에 만났는데 또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만나기 싫

어 오지 말라고, 불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괜찮다며 아주머니 불일 보시라고, 다 보시면 그때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다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외출해야 한다고 하자 그는 어디 가냐고 물었고, 저는 X현에 있는 아픈 친구를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마 휴대폰을 검색해본 듯 즉시 말했습니다. “X현도 아주머니네 ××시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X현으로 아주머니를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남이 아픈데 당신들 경찰복 입은 한 무리가 남의 집에 가면 뭐가 됩니까? 괜히 그 사람들 놀라게 하지 말고요.”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친구분 집 근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아주 늦게 나올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그는 괜찮다고, 아무리 늦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또 사법청을 찾아갔는데 그때 이미 오후였습니다. 뜻밖에도 밤이 꽤 늦었는데 그 부감옥장이 또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만나지 않겠다고, 집에 없고 ××시(성도)에 왔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자기도 방금 ××시(성도)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사법청이 감옥에 전화해서 그가 이쪽으로 달려온 것 같은데, 끊임없이 위치를 알려달라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대화 끝에 그는 에둘러서 남편 시신을 조속히 화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는 검찰원을 찾아가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고 반드시 먼저 해결해줘야 화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그에게 빨리 해결하라고 큰 압력을 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온 과정이 비록 당시에는 별 효과가 없어 보였지만 바른 힘이 끊임없이 축적되어, 그

때가 되니 사악이 견딜 수 없게 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 번 저를 찾아와도 타협이 안 되고 위선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자 그는 사악한 수법을 썼습니다. 그들은 제 큰딸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일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기에 감히 더는 큰딸을 괴롭히지 못하고, 제 둘째 딸 직장으로 찾아갔으며 또 둘째 사위, 큰 사위를 찾아갔는데 그들은 모두 공무원입니다. 시신을 빨리 화장하지 않으면 장래에 영향이 있고 업무에 지장이 있으며 아이 진학에도 영향받을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자 정말 둘째 사위가 겁을 먹었습니다. 둘째 사위는 사당(邪黨) 사상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고 당시 부직(副職)에서 정직(正職)으로 승진하려던 참이었으며, 외손녀도 몇 년 뒤면 대입 시험을 치르기에 이런 중대한 이익이 걸린 일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매우 초조해졌습니다. 원래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그가 집에 와서 둘째 딸과 상의하길, 아이가 영향받지 않게 하려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둘째 딸도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 제게 그들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두려워 마라. 내가 너희와 인연을 끊으마.” 둘째 딸은 급히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들어가 살겠다고, 이제 너희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 혼자 산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제 심리상의 중대한 돌파였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구매 판매 업무를 했고 관리자여서 자주 출장 가고 회의하느라 밥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두 아이가 어렸는데 제가 식당에 수표 한 장을 맡겨두면 아이들이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나중에 결제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일이 바빠지 않아 밥을 했기에 습관이 됐습니다. 은퇴해서 시간이 있어도

밥을 하지 않았고 다 남편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잡혀간 뒤 저는 둘째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도 제 의존심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밥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독립적으로 생활했으며, 아이들도 때때로 먹을 것을 보내주고 장을 봐서 보내줬습니다. 지금은 이미 적응해서 느낌이 아주 좋고 아주 자유로우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방해받지 않습니다.

부감옥장 L이 끊임없이 저를 찾아오는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 지역 정법위를 찾아가 전 성의 힘을 동원해 제 남편 일을 해결하겠다고 떠벌렸습니다. 끊임없이 제 아이들 직장에 가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저와 수련생이 만나는 데도 미행하고 옆에서 엿듣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 우리 지역 수련생에게도 큰 압력을 주었습니다. 수련생 집에도 각자 일이 있고 또 다른 사람 구하는 일을 해야 했기에, 안전을 위해 우리는 예전처럼 만나서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타자를 칠 줄 몰라 아주 힘들게 겨우 몇 글자 편지만 보낼 수 있었습니다.

L이 계속 찾아오자 저는 좀 귀찮아졌고 게다가 수련생과 제때 연락하기 불편해져서, 한동안 저는 감옥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이 일반인 변호사를 한 명 구해 감옥과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L이 자주 아이들 직장에 찾아가자 아이들 직장 사람들도 그들을 귀찮아했고, L을 보면 바로 당사자가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도 차츰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 모두 감옥과 얼굴을 붉히며, 이 일은 어머니가 결정하는 것이니 자기들은 전혀 설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L은 더는 감히 거만하게 굴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었기에 말투도 공손해졌습니다.

이렇게 또 한동안 시간이 지나 저는 또 성도(省都)로 가서 사법국, 감옥관리국, 성 정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사망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 냉동돼 있어요. 당신들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베이징에 갈 겁니다.” 성 정부 직원이 말했습니다. “베이징엔 가지 마세요. 그럼 영향이 좋지 않으니 우리 내부 일은 우리가 해결합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법청이 먼저 제게 연락해왔고 감옥관리국에 제 문서에 답변하라고 독촉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제가 EMS로 보낸 문서를 반송했기에 이번에 다시 한 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또 제가 선임한 변호사에게도 먼저 연락했습니다.

올해 어느 날 변호사가 전화해서 감옥 쪽이 돈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동의하냐고 물었습니다. 동의하면 합의서를 써서 확정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만나는데 동의했습니다.

며칠 뒤 감옥 부감옥장과 그의 상사 M 처장, 그리고 다른 감옥 직원들과 변호사가 다 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데리고 둘째 딸 직장으로 가서 근무 중인 둘째 딸을 찾았고 우리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공손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반드시 30만 위안이어야 하고 적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L은 애원하는 말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우린 정말 이렇게 많이 배상해본 적이 없어요. 감옥에선 늘 사람이 죽는데 우린 보통 6~7천 위안이면 해결했어요. 지금 남은 건 두 집뿐이라 해결하기 힘든데 아주머니네가 가장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말투를 보니 확실히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

중에 그들이 19.8만 위안을 내겠다고 하며, 이렇게 많이 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반복해서 강조했고, 이 19.8만 위안마저도 반드시 두 번에 나눠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자 L 등은 조심스럽게 애원하는 말투로 말했는데, 혹시라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제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가 약속해도 돈이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따라온 감옥장의 상사 M 처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만족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최대한 어르신을 만족시켜 드려야죠. 돈이 안 나오니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방법을 생각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5만을 주고 변호사 사무실이 감옥에 영수증을 끊게 합시다. 변호사 사무실이 수임료를 떼고 남은 돈을 아주머니께 드리는 걸로요.”

저는 여전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M 처장이 또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만족하지 않으시는데 다른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모금해서 제가 1천을 내고 이번 제 출장 수당은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부감옥장 L에게 “자네가 5천을 모으게”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자네가 2천을 모으게”라고 했습니다. 부감옥장은 제 면전에서 자기 아내에게 전화해 은행 가서 돈 찾아 보내라고까지 했습니다. 몇 사람은 또 끊임없이 제게 동의해달라고 빌었고, 심지어 계속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제게 빌었습니다.

당시 제가 보기에도 그들이 좀 불쌍해 보였고 나중에 ‘됐다, 그냥 들어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배상금이 우리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들이 회유와 강압을 병행하고 가족을 공갈 협박하다가 결국 방법이 없어 재차 애원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도 제가 알리는 진상을 들었기에 저는 더는 고집하지 않고 합의서 서명에 동의했습니다.

이때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계실 때 아버지를 빨리 감옥 밖 병원으로 보내 진료받게 하려고 우리가 감옥에 1만 위안을 부쳐줬는데, 당신들은 나중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아무 말도 없이 유야무야했어요. 이 돈을 당신들이 돌려줘야 해요.” 감옥 부감옥장은 처리하기 곤란하다며 치료에 썼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제 휴대폰에 다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대납한 건데 안 주면 우리가 계속 고소하길 바라는 건가요?”

부감옥장은 얼른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잠시 후 그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우리 책임자와 이야기됐습니다. 그 1만 위안도 드리는 걸로요.”

그 후 감옥은 시신을 화장했고 남편은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직접 성 감옥, 공안청, 성 감옥관리국, 성 정부, 성 부녀연합회, 본 시 정법위, 공안국, 법원, 사법국, 중급법원, 기율검사위 등을 찾아가 대면해서 진상을 알리며 제가 느낀 가장 큰 체험은, 상대방이 매우 사납게 나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신의 위치에 놓을 수 있다면 정말로 신의 강력하고 비할 바 없는 에너지를 연결해 악을 진압할 수 있고, 이로써 대법의 위엄 있는 일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비는 양심이 아직 남아있는 자를 구원할 수 있고, 양심이 완전히 먼지에 뒤덮인 사람에게는 위엄이 작용을 일으킵니다.

감옥 일은 일단락되었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남편의 병보석을 받아주지 않은 현지 사법국, 우리집 사유 재산을 압수한 공안국, 그리고 남편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린 법원, 연금을 압류한 사회보장국 등 관련자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

들을 찾는 목적은 인연 있는 사람을 찾아 법률을 통해 진상을 알리고, 그들이 하루빨리 파룬궁 진상을 이해하여 박해에 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법 또한 위엄이 있어 대법제자를 박해하고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상 이야기한 것은 비록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는 80세에 가까운 노인이고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학력입니다. 만약 사부님의 보호와 가지(加持)가 없었다면, 대법의 인도가 없었다면, 현지 수련생들의 다방면의 유력한 도움이 없었다면, 공의포럼 법률 전문가 수련생의 노고 어린 지도가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걸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전체 협력의 결과이며, 이는 오직 대법 중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무사무아(無私無我)의 숭고한 경지입니다.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법공부와 마음 수련, 기술 지원을 잘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회 명혜망 중국법회를 맞이하여, 제가 법공부와 마음 수련(修心)을 하고 컴퓨터 기술 지원을 잘하면서 느낀 몇 가지 체험을 써서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법공부와 마음 수련

1) 법공부를 잘하고 연공을 잘하다

사부님의 거듭된 설법은 제게 수련인으로서 법공부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수련 제고와 모든 일을 잘 해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보장이며, 법공부를 잘해야만 하려는 일을 더 잘하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평소 법공부를 중시하여, 보통 매일 2~3.5시간의 법공부 시간을 유지하려 합니다. 통독 효과가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면 법 암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법공부를 주로 법 암기 위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전법륜(轉法輪)을 외우고 때로는 《정진요지》, 《홍음》 등도 외웁니다. 지금은 법을 외울 때 마음을 쓰고, 마음을 조용히 하며,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수량을 추구하지 않고 적어도 두세 번 반복해서 외워야(속으로 외우는 것과 한 문장씩 대조하며 외우는 것 포함) 비로소 외운 것으로 칩니다. 법을 외우는 과정에서 사부님 법 중의 문장 부호 하나하나가 모두 내재된 함의가 있음을 느끼기에, 저는 법을 외울 때 문장 부호조차 틀리지 않도록 자신에게 요구합니다.

동시에 연공 면에서도 비교적 다그치는데, 보통 매일 5장 공법을 전부 한 번씩 연마합니다. 마음을 써서 하는 법공부와 연공은 제 수련과 컴퓨터 기술 지원을 잘하는 데 견실한 기초를 닦아 주었습니다.

2) 대법을 배워 지혜를 열다

약 27, 8년 전, 직장에서 업무 능력이 비교적 뛰어나 중간 관리직을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사업은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지만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설마 이것들을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 때때로 막막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때는 머리로 문제를 사고하는 것이 좀 둔하게 느껴졌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기가 무척 어려웠으며, 책을 30분만 연속해서 봐도 눈이 뻑뻑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대법을 배운 후 이런 증상은 전부 사라졌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쉬워졌습니다. 특히 최근 7, 8년간 컴퓨터 기술을 배울 때, 많은 부분에서 배우자마자 바로 이해가 되고 수많은 지식도 서로 연결하고 통달할 수 있게 되어, 젊었을 때보다 더 빨리, 더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는 저만의 독자적인 견해도 생겨서 스스로도 좀 불가사의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것이 사부님과 대법께서 제 지혜를 열어주신 것이며, 사부님과 대법이 제게 주신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자신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모두 사부님과 대법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수련생을 도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해서, 혹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겨선 절대 안 된다. 나는 그저 사부님과 대법이 주신 지혜로 배운 지식을 이용해 수련생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뿐이며, 사부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3) 기술 지원 중에서 자신을 수련하다

법공부를 통해 저는 법은 자신을 수련하기 위한 것이지 남을 수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법으로 저 자신만을 가늠하고 요구하며, 법으로 남을 가늠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공부를 통해 저는 무슨

일이 발생하든, 지금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괴롭고 남과 논쟁하고 싶어진다면, 그것은 분명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의 어떤 관념이나 어떤 마음이 건드려진 것이니, 스스로 수련하고 제고해야 하며 그 관념과 마음을 없애야 할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 포럼에서 답변할 때, 간혹 제 기술 답변이 타인의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 중에는 확실히 제 지식의 한계나 짐작으로 인해 답변이 부정확해서 생긴 것도 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수정하며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은 질문자의 지식이나 기술 한계로 인해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 참지 못하고 늘 상대방과 시비를 가리거나 논쟁하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지금의 저는 급하게 제 관점을 표명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냉정하게 하고(개별적인 경우에는 강제로라도 냉정하게 합니다), 건드려진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진 뒤에 다시 이성적으로 제 근거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면, 수련생도 대부분 결국 문제의 소재를 인식하고 미안함을 표시합니다. 어떤 질문자는 자신의 질문이 틀렸음을 인식했을 때 자신의 질문에 대해 핑계를 대거나 침묵해버리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평온하게 대하며 한번 웃고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한 수련생이 제 답변 중 하나에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저의 다른 답변은 문제 고려가 전면적이지 못하고 모든 가능한 상황을 나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금 자세히 살펴보니, 앞의 답변은 확실히 제가 자만하여 고증을 거치지 않고

짐작으로 답변한 것이라 부정확했습니다. 뒤의 답변은 마침 제가 비교적 잘 아는 분야여서 비록 간단하게 답했지만, 핵심을 짚은 것이라 문제 해결에 유리했습니다. 수련생이 제가 전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아마도 수련생이 그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전면적으로 답변해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저는 변명하지 않고 수련생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의 문제는 제 느낌만 믿고 짐작으로 답변하면 편차나 오류가 생기기 쉽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었고, 이후 답변할 때 더욱 신중하게 만들어 제가 잘 모르거나 고증과 근거가 없는 문제는 함부로 답변하지 않게 했으며, 서서히 더욱 객관적이고 엄정한 태도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뒤의 문제는 비록 제 답변이 맞았지만, 과거의 답변들도 확실히 일부가 간략하거나 문제 고려가 전면적이지 못한 상황이 있었는지 반성하게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답변할 때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고려하고, 답변 내용을 가능한 한 전면적이고 완벽하게 구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는 무형 중에 제 답변의 품질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제게 문제를 제기해 준 이 수련생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답변을 진행할 때, 때로는 다른 수련생의 답변이 불완전하거나 문제에서 벗어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그 아래에 댓글로 문제에 대한 제 인식과 해결 방법을 말할 뿐, 수련생의 답변 어디가 문제라고 질문하거나 지적하지 않아 수련생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고려할 때 누구나 빠뜨리거나 전면적이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할 때가 있고, 때로는 틀린 답을 하는 것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할 때는 그저 진솔하게 제 인식과 견해를 말해 타인이 참고하게 할 뿐, 인정받거나 채택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저는 남을 질책하거나 격렬한 언사를 사용하지 않으며, 타인의 질책이나 비교적 격렬한 언사에 대해서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강변(強辯)에 부딪혀도 다투지 말지니 안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수련이라’(홍음3-논쟁하지 말라)를 떠올리며 남과 논쟁하지 않고 제 문제점을 찾습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로 문제에 부딪히면, 마음을 써서 법공부를 하며 닦은 견실한 기초가 있어 법리상으로는 명백할지라도 때로는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자극적인 일들이 떠오르는데, 이때 저는 사부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외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한(羅漢) 그 층차에 도달하면 어떤 일과 마주쳐도 다 마음에 두지 않고, 속인 중의 모든 일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으며, 언제나 싱글벙글하면서, 아무리 큰 손해를 보아도 싱글벙글하며 개의치 않는다. 정말로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나한의 초급과위에 도달한 것이다.”(전 법륜) 외우다 보면 점차 홀가분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더는 그 일들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한도 그럴 수 있는데 하물며 대법 수련 중에서 더 높은 과위에 도달하려는 우리 수련인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모두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난은 대부분 수련인이 조성한 것이지만, 그 일을 조성할 때 그 역시 속인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 포럼은 겉보기에 기술만 교류하고 기술적 도움을 주는 곳 같지만, 실제로는 다방면의 심성 제고 요소가 그 안에 존재하며, 수련인이 수련하고 제고하는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수련생이 복

잡하고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 것을 볼 때마다, 제 기술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수련생을 도와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아니면 고의로 피하는지, 수련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내 답변이 수련생에게 도움이 되어 기쁜 것인지 아니면 속인처럼 득의양양해하는지, 수련생이 어떤 면에서 나보다 뛰어난 것을 볼 때 수련생의 제고를 기뻐하는지 아니면 질투심이 생기는지, 나보다 더 좋은 답변을 볼 때 나의 부족함을 보고 이후에 더 잘하려 하는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상실감을 느끼는지 등등, 시시각각 모든 일이 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 역시 점차 인식하고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술 포럼에서 기술부터 심성 등 여러 방면에서 제 제고에 도움을 준 모든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술 포럼이라는 이런 플랫폼이 있어 우리 모두가 서로 돕고 함께 제고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 컴퓨터 기술 배우기

1) 동기

남에게 컴퓨터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은 원래 컴퓨터 전문 기술자나 그쪽에 특기가 있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컴퓨터 기술 전공과 거리가 멀고 그쪽 특기도 없으며(그저 겉핥기 식으로만 아는), 심지어 영어조차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컴퓨터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략 8, 9년 전, 기술 포럼에 로그인했을 때 우연히 운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했는데, 정말로 수련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수련생에게 컴퓨터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들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구나!’ 이것이 제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고, 현지에서 제가 맡은 대법 실증 항목을 잘 하는 것 외에도 이때부터 컴퓨터 기술 학습과 기술 지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 기술 입문

컴퓨터 기술에 입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술 배우기가 너무 어렵고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단 입문하고 나면 컴퓨터 기술을 배우는 것이 사실 상상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 몇 가지 체험입니다.

보이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所見即所得): 컴퓨터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직관적이어서 보이는 것이 곧 그것입니다. 클릭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클릭해서 들어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스템 파일을 함부로 삭제하거나 시스템 설정을 함부로 수정하지 않는 한 컴퓨터 운영체제를 망가뜨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머지않아 운영체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컴퓨터의 많은 응용 프로그램과 설정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인터넷을 잘 활용한다: 인터넷과 기술 포럼에는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 관련 지식과 기술이 많고, 매우 포괄적이며 비교적 완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관련 그림 설명서와 구체적인 조작 방법은 이해하기 쉽고 배우기 쉬워, 구체적인 순서에 따라 조작하기만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보조 도구를 잘 활용한다. 문제에 부딪히면 검색 엔진(구글 검색 등)을 사용해 해결 방법을 찾고, 영어를 모르면 구글 번역을 사용해 영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림 속에 영어가 있으면 먼저 문자 인식 도구로 텍스트로 변환한 뒤 다시 번역합니다. 캡처 도구를 사용해 캡처한 화면에 그림 표시와 문자 설명을 덧붙이면 담고 있는

정보량이 많아져 형상적이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반영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분야를 만든다: 기술을 배울 때 모든 것을 다루려 하지 말고, 필요하거나 관심 있는 것을 배우며, 필요 없거나 관심 없는 것은 배우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견해를 가져서, 배운 것이 장기가 되고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수련생의 문제 해결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3. 컴퓨터 기술 지원을 잘하다

마음을 써서 답변하고, 자신이 잘하는 기술 분야에 집중한다: 검증할 조건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제 컴퓨터에서 실습해 보고, 검증에 성공한 후 수련생에게 답변하며, 필요할 때는 직관적인 화면 캡처를 곁들입니다. 문제 답변은 가능한 한 절차를 상세히 하고, 조리가 분명하며, 알기 쉽게 하여 기술이 비교적 부족한 수련생이라도 답변을 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답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수련생의 기술적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배우는 중에 쓰고, 쓰는 중에 배운다: 제가 잘하는 기술 분야지만 확신이 없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구글에서 검색합니다. 하지만 검색된 관련 지식은 종종 잡다하여 수련생에게 직접 제공하기 부적합하므로, 제 기술 지식과 경험을 결합해 관련 지식을 선별, 재구성, 최적화하고 제 견해를 더해 답변하기 적합한 내용으로 정리한 뒤 수련생에게 답변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련생의 관련 문제 해결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제 기술 지식과 경험도 풍부해지니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예측하고 함부로 반문하지 않는다: 수련생이 묻는 어떤 문

제는 비교적 포괄적이거나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때 저는 수련생이 겪은 문제를 자세히 읽고 제 경험과 지식을 결합해 수련생이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예측하여 그 예측에 맞춰 답변합니다. 구체적인 예측이 어려울 때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 가설을 세우고, 각 가설에 맞는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은 더 많이 걸리지만 의외로 좋은 효과를 거두곤 합니다.

각도를 바꿔 문제를 본다: 때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에 부딪히는데, 문제를 보는 각도를 바꿔서 수련생의 그 구체적인 문제에 빠져 생각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다른 각도에서 수련생에게 답변하면 의외로 좋은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림 설명서(圖文教程)를 제작한다: 그림 설명서의 장점은 그림과 글이 함께 있어 알기 쉽고,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조작하기 쉬워서 컴퓨터 기초가 부족한 수련생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면에 기술적 깨달음을 얻고 그 기술이 어떤 수련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것을 그림 설명서로 제작해 공개합니다. 그림 설명서 하나를 만들려면 기획, 관련 지식 수집, 지식 정리, 구상, 캡처, 제작, 반복적인 오류 수정, 배포, 피드백을 반영한 수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고 시간도 많이 소비되지만(가장 오래 걸린 것은 누적 약 50시간), 수련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만 하면 제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답변하고 타인의 답변 성과를 존중한다: 저는 지금 맹목적으로 답변 글을 달지 않고, 게시물 수량을 추구하지 않으며, 내용이 중복되는 답변을 달지 않고, 오직 수련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답변합니다. 답변할 때 때로는 기술 포럼의 다른

수련생의 기술 답변과 성과를 빌려야 할 때가 있는데, 저는 답변에 그 링크를 인용하거나 그 답변을 인용할 뿐,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 제 답변인 양 하지 않습니다.

오류나 규범적이지 않은 곳을 수정한다: 문제 답변의 품질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기술 지식의 한계와 사고의 국한성 때문에 간혹 답변에 오류가 있거나 규범적이지 못한 곳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발견하면 저는 게시물에 설명을 추가해 제 답변의 어느 부분이 틀렸거나 규범적이지 않은지 지적함으로써, 나중에 다른 수련생이 보았을 때 불필요한 의혹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맺음말

수련 과정 중에 어렵게 고비를 넘길 때도 있고, 법공부와 연공을 하다가 가끔 해이해질 때도 있으며, 잘 파악하지 못해 일을 그르칠 때도 있고, 잘 알아차리지 못한 집착심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비록 제게 여전히 많은 부족함이 있고, 현지에서 대법 실증 일을 할 때 각기 다른 정도의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며, 가족과 지내는 중에 심성 충돌도 있고, 속인 사회와 교류하는 중에 이익과 심성의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안을 향해 찾고’[정진요지-대법(大法) 산동 보도소에], 대법의 지도와 평소 중시해 온 법공부로 닦은 기초가 있기에, 저는 이후의 수련 길을 잘 걸어갈 것이며 제자에 대한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濟度)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부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번 생에 대법을 수련할 인연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부님께 엎드려 절을 올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거대한 시련 속의 신성한 큰 시험

글/ 중국 허난성 대법제자

[명혜망] 정법(正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모든 수련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역사적으로 맺은 서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명혜망 투고를 빌려 사부님과 수련생 여러분께 저의 수련 상황을 보고드리고, 사부님께 하나의 답안지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1. 천고에 사부님을 찾아 대법을 얻다

영원하고도 오랜 기다림, 억만 년의 고된 윤회, 생생세세의 험난한 고난 끝에, 저는 드디어 사부님께서 삼계 내의 가장 낮은 층차인 인류 사회에 대법을 전하시는 것을 고대했습니다. 1996년 3월 13일, 햇살이 화창한 날, 저는 드디어 법을 얻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직장 생활을 시작해 늙어 은퇴하기까지 수십 년 동안 1958년의 ‘대약진’ 시기를 겪었고, 1960년의 소위 ‘자연재해’(역주: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발생한 대기근)를 겪었습니다. 게다가 위로는 노부모, 아래로는 어린 자녀가 있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했습니다. 더욱 심한 것은 직장에서 저를 기술 혁신 작업장에 배치했는데, 신제품과 구형 기계로 매일 24시간을 두 교대로 나누어 근무했으며, 한 교대당 12시간을 일했고, 기계에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 전에는 퇴근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16시간 정도 일해야 했습니다. 나날이 해가 거듭되면서 온몸에 각종 질병이 생겨났습니다.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신경쇠약증, 전두동염(발작 시 통증이 극심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벽에 부딪치고 책상에 부딪쳤습니다). 또 관절염, 위하수 등 여러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저

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매년 여러 차례 입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병마의 고통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 인연이 닿아 대법을 얻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났으니, 마음속으로 두 배의 행운을 느꼈는데, 이는 사부님께서 제자를 위해 깔아주신 새로운 인생 길입니다.

2. 신기함, 기적, 신성함을 목격하다

그것은 1996년 봄, 3월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함께 산책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잡고 병든 몸을 이끌고 천천히 걸어 광장에 도착했을 때, 한 줄기 아름답고 감미로운 소리를 들었고 소리를 따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련생들이 줄지어 가지런하게 구령에 맞춰 연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둘은 뒤에 서서 그들의 동작을 따라 연공했습니다. 즉시 따뜻한 기운이 전신을 통과하며 수십 년 동안 몸을 옥죄고 있던 쇠사슬이나 칼과 같은 것들이 머리 위에서부터 ‘짜아’ 소리를 내며 몸을 따라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몸이 매우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연공을 마친 후 저는 남편에게 “이 공법은 너무 신기해요! 내일 우리 또 와요”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일찍 광장으로 갔고 수련생들은 저희에게 동작을 손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공을 배운 후 저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의 기쁨과 대법 사부님에 대한 숭고한 존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또 《전법륜(轉法輪)》 두 권과 대법 사부님 법상(法像)을 모셔왔습니다. 매일 시간이 나면 법공부하고 연공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다섯 번째 공법 ‘신통가지법(神通加持法)’을 연마할 때, 막 입정(入靜)했을 때, 한 송이의 흰 구름이 몸 안으로 떠

다니는 것을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이어서, 제 귓가에 흥강 내에서 ‘훅훅, 툽툽’ 하는 소리가 들렸고, 심장이 매우 세게 뛰면서 마치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고통스럽거나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또 몸 안으로 떠다녔던 그 흰 구름이 다시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지식이 있고 책을 많이 읽었으며 오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몸은 작은 우주지. 당신이 말한 그 흰 구름은 아마도 사부님의 다른 공간 법신이 당신 몸속의 좋지 않은 물질을 청소해주신 것일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번은 제가 동공(動功)을 마친 후 막 침대에 누웠을 때, 또 한 덩이의 흰 구름이 몸 안으로 떠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저는 전신을 움직일 수 없었고 오직 두 발만 좌우로 흔들 수 있었으며, 손가락만 왔다 갔다 움켜쥘 수 있었습니다. 한창 신기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 흰 구름이 또다시 떠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가서 “사부님께서 또 제 몸을 청소해주셨어요. 이번에는 대뇌 부위를 청소해주셨는데, 지금 걸을 때 가볍게 떠다니는 것 같고 마치 누군가 밀어주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책 위의 글자를 보면 글자마다 위에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연한 녹색이고, 어떤 것은 연한 붉은색이며, 어떤 것은 연한 파란색이고, 어떤 것은 연한 노란색이야.” 그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정말 신기해! 정말 신기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내면의 감격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사부님께 무한히 감사하고 대법을 무한히 존경했습니다.

대법을 홍양하기 위해 주말마다 저와 남편은 광장에서 수백 명의 수련생이 참여하는 단체 연공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광장 정면

에서는 고음 스피커가 울려 퍼지며, 수련생들에게 자동으로 자리를 잡고 연공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잡은 후 갑자기 고개를 들어 사부님의 거대한 법신께서 공중, 지면에서 수십 미터 높은 곳에 가부좌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눈을 떼 수 없이 사부님을 바라보았고 사부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저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며 코끝이 시큰해졌고, 행복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저는 계속 사부님을 올려다보았고, 사부님께서는 다시 저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저는 두 손을 합장하고, 입으로는 끊임 없이 “사부님! 사부님!”을 외쳤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이때 스피커에서 연공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고 단체 연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은 후 사부님의 법신께서 줄곧 상공에 앉아 저희를 보살펴주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문득 사부님께서 하신 “사부는 법신(法身)이 있어 조용히 보호해 주니”(정진요지-사부를 모시다)라는 한 말씀을 떠올렸고, 사부님의 위대한 자비와 고심어린 노고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감격해 눈물을 흘렸고 순식간에 전신의 땀구멍이 동시에 확장됐으며, 매우 크고 굵어졌고, 몸이 거대해 이 공간에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으며, 머리의 절반이 마치 볼록 거울처럼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연공할 때 제 손은 사부님께서 내리신 기기(氣機, 치지)를 따라 자동으로 손이 날아다녔습니다. 연공이 끝난 후 사부님의 법신께서는 소리 없이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룬따파의 신기함과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신성함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합장하고 눈물 머금은 채 사부님을 배웅했습니다.

3. ‘4·25’의 발단과 ‘7·20’ 청원

1999년 4월 11일, 중국공산당(중공) 정법위원회 서기 뤼간(羅幹)의 처남 허쥘슈(何祚庥)가 텐진교육대학에서 발행하는 전국적인 정기 간행물에 파룬궁을 폄훼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실정을 반영하러 갔지만 40여 명이 체포됐고, 심지어 공무원들로부터 “베이징에 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4월 25일, 각지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자발적으로 국무원 청원 사무실에 청원하러 갔습니다. 청원자는 많았지만 이성적이고 조용했으며 경찰은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 총리가 파룬궁수련생 대표를 접견했고 이후 텐진시 공안국에 체포된 사람들을 풀어주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날 저녁 청원자들은 조용히 떠났으며 현장은 깨끗하고 단정해 종잇조각 한 장 없었습니다.

‘4·25’ 청원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이성적인 청원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중공 장쩌민(江澤民) 집단은 이 일을 ‘중난하이 포위’로 왜곡했고, 같은 해 7월 20일에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전국 각 성·시·구·향·촌의 모든 연공 장소는 공안, 파출소,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등 직장 내 사악한 사람들의 감시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집까지 미행했습니다.

1999년 4월 25일 이전, 저희 시에는 수십 개의 연공 장소가 있었고, 시내든 시골이든 어디서든 아름답고 감미로운 연공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99년 ‘7·20’, 사악한 중공의 대법에 대한 박해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악은 모든 텔레비전, 라디오 등 선전 기관을 조종해 밤낮으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퍼뜨려 세인들

을 미혹하고 기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악한 박해가 매우 기승을 부렸습니다. 외출해 차를 탈 때, 각 교통 요지, 각 역에서 승객들은 엄격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박해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999년 7월 22일, 저와 남편은 법에 따라 성(省) 소재지로 청원하러 갔습니다. 버스가 중간쯤 가고 있을 때 공안이 앞에서 가로막고 차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들은 다른 속셈이 있으니 차에서 내리면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귓가에 갑자기 “두 사람은 안심하고 앉아 있으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줄곧 아무도 저희에게 내리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저는 사부님께서 저희에게 방호막을 씌워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볼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차창을 열고 밖을 보니 땅바닥에 사부님의 법상이 놓여 있었고, 차에서 내린 승객들이 줄을 서서 악당들이 그들에게 법상을 밟고 사부님을 욕해야만 차에 탈 수 있게 했으며, 밟지 않거나 욕하지 않으면 차에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지 못한 사람이 10여 명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성 위원회 정문에 도착했고 정문 양쪽에는 무장 경찰이 총을 들고 서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경비를 서는 무장 경찰에게 진상을 말했습니다. 무장 경찰은 “빨리 떠나세요. 한 걸음이라도 더 가면 체포됩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 위원회 대원(大院)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세 개의 고음 스피커가 울려 퍼지며 소위 ‘파룬궁을 취소한다’는 민정부 통지를 반복적으로 방송했고, 무장 경찰들이 때를 지어 달려와 방패를 들고 진압하며, 기세등등하게 파룬궁수련생들의 청원을 몰

아냈습니다. 경찰차는 폭력적으로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분위기는 매우 음산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저와 남편은 당일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 소재지 청원이 좌절되자 파출소, 주민위원회, 담당 경찰과 직장 지도자의 엄격한 관리와 감시를 받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상의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고 내가 베이징에 갈게요. 당신은 나보다 영향력이 크니 그들이 당신이 집에 있는 것을 보면 안심하고 떠날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라고 동의했습니다.

1999년 10월 17일, 저와 약속한 몇몇 수련생은 전용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서 베이징으로 직행했습니다. 베이징 청원국에 도착했을 때 평소 근무하던 직원들은 이미 공안 경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느 성에서 왔는지 묻자 저희는 사실대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차에 타세요. 제가 당신들을 도와 해결할 장소를 찾아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희를 베이징 주재 현지 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저희가 그 장소에 도착해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소 사람들은 “당신들이 베이징에 와서 돈 쓰고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신들 사부님은 책 팔아 돈 벌어서 해외에서 호강하고 있고 당신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사부님께서 해외에 가신 것은 초청을 받아 해외에서 법을 전파하시며 세상의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부님께서 돈을 벌고 싶으셨다면 책을 팔 필요도 없이, 단지 ‘각자 나에게 1위안씩 내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전국적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연공하니, 우리 사부

님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부님은 저희에게 돈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지 저희에게 연공하고 마음을 수련해 선하게 되며,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실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현지 공안이 저희를 납치해 현지 구치소에 불법 감금했고 10여 일 후 저를 집으로 풀어주었습니다.

4. 정사대전(正邪大戰)에서 대법을 실증하다

1) 정사대전에서 자신을 희생해 남을 구하다

2000년 10월 1일, 저는 다시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습니다. 이번에 베이징 청원을 약속한 사람은 총 14명이었습니다. 서로 돌보기 위해 두 명씩 한 조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막 광장 서남쪽으로 걸어갔을 때, 광장 동남쪽에서 한 무리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보니 네 명이 한 줄로 약 20여 줄 100여 명 이상이었습니다. 손에는 전기봉을 들고 있었고, 뛰어나가는 방향은 광장의 국기 게양대였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걸음을 빨리해 그들 앞에 도착했을 때, 천안문 광장은 이미 인파로 붐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수천, 수만 명의 대법제자들이 대법을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또 무장 경찰, 사복 경찰, 경찰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정사대전의 주 전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저희 둘도 인파 속으로 들어갔고 수련생들과 함께 일제히 구호를 외쳤습니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파룬따파는 정법입니다! 우리에게 수련 환경을 돌려달라! 리홍쯔 사부님의 결백을 회복시켜달라!”

무장 경찰, 사복 경찰, 경찰들은 구호를 외치는 방향으로 전기봉을 휘둘러 때렸습니다. 어떤 수련자는 맞아서 얼굴이 시퍼렇게 멍

들고 눈이 방향을 분간하지 못해 포위망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힘껏 인파를 헤치고 악인 앞에 가서 “사람을 때리지 마라!”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앞의 악인은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고, 곧바로 저는 눈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전기봉과 주먹이 머리와 등에 끊임없이 부딪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꼈을 때 한 젊은 대법제자가 제 팔을 부축하며 “버티세요. 쓰러지면 밟혀 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부축하면서 구호를 높이 외쳤습니다. 경찰들은 우리를 더욱 맹렬하게 때렸고 저는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원신(元神)이 몸을 떠나 공중으로 떠올라 천안문 광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은 정말 많았고, 인파는 파도처럼 요동쳤으며, 파룬궁수련생들의 구호가 끊임없이 이어져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경찰들이 사람을 잡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파룬궁수련생들은 서로 손을 붙잡고 구호를 외치며 경찰들이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정사대전의 장엄한 장면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젊은 대법제자는 줄곧 저의 팔을 부축했고 경찰들은 줄곧 경찰봉으로 그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가 너무 많은 고통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저의 원신은 본체(本體)로 돌아와 구호를 높이 외쳤습니다.

저희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베이징 광장 근처의 큰 마당으로 끌려갔습니다. 큰 마당은 이미 청원자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한 명 한 명이 펜처럼 곧게 서서 밀집해 있었으며, 높이 외치는 구호는 정말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경찰이 저를 차에서 끌어내려 문 안으로 데려갔을 때, 다른 경찰이 이 경찰의 귓가에 “마당을 향해 사

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찰은 듣자마자 즉시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저는 주위 수련생들에게 “경찰이 사진 찍는 사람을 잡으러 갔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수련생들이 사진 찍는 사람에게 “당신을 잡으러 와요, 빨리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은 듣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경찰은 헛걸음했습니다.

사악은 왜 사진 찍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시키는 일은 모두 당당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진상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문 밖에 큰 버스가 한 대 왔습니다. 사람들을 가득 태운 후 베이징 주변 현(縣)의 구류소, 감시소, 감옥 등으로 끌고 갔습니다. 버스가 한 장소에 도착하자 문 앞에 ‘만실[已滿]’이라고 쓰인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 도착했지만 팻말 위에는 여전히 ‘만실’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몇 군데를 보냈지만 모두 보내지 못하고 다시 베이징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저와 함께 온 수련생은 시청(西城) 구류소에 감금됐습니다.

2) 남을 돕는 숭고한 품성

베이징 구류소에서 저는 한 베이징 수련생으로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베이징에 한 노부부 수련생이 있었는데 아들, 며느리, 손자 다섯 식구가 모두 수련했습니다. 어느 날 밤, 노부부가 밖에 나가 진상을 말할 때, 외지에서 청원하러 온 대법제자들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 인도에서 노숙하고, 어떤 사람은 터널에 웅크리고 사는 것을 보고 한동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어젯밤에 본 상황을

설명하고, 아파트 한 채를 팔아 외지에서 법을 수호하러 온 수련생들을 돕는 것을 상의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새집을 파는 것이 좋겠어요. 새집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노부부는 집을 팔아 얻은 돈을 가지고 골목골목을 다니며 외지에서 온 수련생들을 찾아 그들의 식사와 숙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멀리서 온 한 여성 수련생이 있었는데 남편이 베이징에서 일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만나러 왔을 때 베이징에 온 외지 수련생들이 배고플 때 마른 떡을 씹고, 목마를 때 수돗물을 받아 마시는 것을 보고, 그녀는 즉시 직장으로 돌아가 휴직하고, 베이징에 식당을 열었습니다. 낮에는 수련생들에게 따뜻한 국과 따뜻한 떡을 무료로 제공하고, 밤에는 식탁과 의자를 옆으로 치우고, 돛자리와 이불을 깔아 수련생들이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또 경찰이 외지에서 청원하러 온 대법제자들을 큰 회의실에 감금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마침 그녀의 숙소 창문과 회의실 창문이 마주 보고 있었고, 약 2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생수와 유타오(油條, 파배기), 떡, 전병 등을 보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인데, 이 베이징 수련생은 자신이 이미 7번 구류소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15일 후 나가면 다른 수련생이 들어올 것인데, 이 구류소에는 가짜 경문, 가짜 수련생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사악이 법을 파괴하기 위해 배치한 것입니다. 베이징 수련생들은 외지에서 온 수련생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스스로 윤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듣고 감동해 마지않았습니다. 밤에 꿈을 꾸었는데 사부님께서 높은 곳에서 내려와 저의 앞에 떠다니며 내려오셨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저에게 “무엇이 부처(佛)인가?”라고 물으셨고, 저는 “부처는 바로 우주의 수호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부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손에 접혀 있는 시험지 종이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받아서 미처 볼 틈도 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며칠 후 수련생의 신분증이 압수돼 베이징 구류소에 6일 동안 불법 감금됐습니다. 현지 국보가 또 저희를 납치해 현지 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불법적으로 1년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지만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노동수용소에서 수감을 거부했습니다. 국보 경찰은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짓밟으며 여전히 저를 집으로 풀어주지 않고 구치소에서 ‘전향’하지 않으면 계속 감금하겠다고 했습니다.

3) 대법을 굳게 믿고 정념을 확고히 하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저는 베이징에서 들은 일들을 수련생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어떤 수련생들은 눈물을 머금고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베이징 수련생들이 정말 잘했어요. 우리도 나가서 큰일을 해야 합니다.”

한번은 저희 10여 명의 수련생이 단체로 연공했는데, 순경에게 발견돼 소장에게 보고됐습니다. 소장은 관직을 잃을까 두려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가장 추운 한겨울 때, 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는데 소장은 경찰에게 저희 10여 명의 여자 수련생들에게 솜옷과 신발을 벗게 하고 맨발로 내복만 입고 감시 마당에 서도록 강요해 ‘동형(凍刑)’을 실시했습니다. 땅에 서서 세 시간 동안 몸이 얼었지만 저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금도 춥다고 느끼지 않았고 경찰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희 10여 명은 모두 자비로우

신 사부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고통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금 기간 경찰은 강온 양면책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저를 타협시키려 망상했습니다. 어느 날 구치소장이 저를 불러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 직장 상사가 당신이 아직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수련하면 당신 아들이 ‘과장’에서 ‘서기’로 승진하는 것이 무산됩니다!” 저는 “제가 연공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이 없어 입원하지 않고 약을 먹지 않으며 주사를 맞지 않으니, 직장과 가정에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은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직함에 ‘장(長)’이 붙은 사람은 행정을 담당하고, ‘서기’ 직함은 사악한 당의 당무를 담당하니, 승진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대법을 담고 있으니 자비롭고 위엄이 있어 그들의 계략은 하나하나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4) 수련생들의 자기희생적인 행동에 감동하다

베이징 구류소에서 몇몇 수련생들의 자기희생적인 감동스러운 행위들은 존경스러웠고,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자기희생적인 일이 있더라도, 나도 용감하게 나서서 아끼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03년 1월, 저는 구치소를 나와 자유를 회복했습니다. 3월 어느 날 밤, 저는 현지 몇몇 큰 자료점이 동시에 사악에게 파괴돼 수련생들이 《명혜주간(明慧週刊)》을 볼 수 없고, 명혜망과 연락이 끊겨 매우 초조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자료점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 수련

생이 심성이 착실하고 집의 위치가 자료를 만드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이전에 해본 적이 없었으므로 저는 그녀와 상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장이 파산해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둘이 협력합시다. 당신이 장소를 제공하고, 내가 자금을 제공해 자료점을 만듭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5천 위안으로 복사기 한 대를 샀고 소모품과 필요한 물건을 샀으며, 외지에 가서 판본을 찾아 복사하기 시작해 주위 수련생들에게 공급했습니다. 복사기 한 대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또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소모품은 모두 성도(省都)와 다른 시에서 구매했으며 차를 운전해 왕복했습니다. 저와 다른 수련생이 7만 위안을 모아 승용차 한 대를 구매했고, 운전면허가 있는 수련생을 찾아 자료점만을 위해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2004년에 저는 제 집의 별채 안에 작은 밀실을 정성껏 설계하고 구축해 자료점을 만들었습니다. 한 기술 수련생이 저에게 컴퓨터 조작을 가르쳐 주어, 외부에 가서 판본을 찾는 번거로움을 해결했습니다. 작은 자료점의 기능은 점차 완벽해졌고, 장비를 갖추고, 각종 제작 기술을 습득해, 대법서적, 《명혜주간》, 진상 소책자, 진상 호신부, 호신 카드, 진상 CD, 옥 호신부 조각 등 각종 자료를 제작할 수 있었으며, 품질은 정교해 전문가 수준에 필적했습니다. 수련생들이 사람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본 시의 것이든, 외현(外縣)의 것이든, 농촌 시골의 것이든, 요청만 하면, 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시에 고품질로 완성했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일했지만 다음 날에도 여전히 정신이 맑았고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법 수련의 초범성은 천진만확(千眞萬確)합니다.

기술을 배우고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적이 많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저의 지혜를 열어주셨는데,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는 칠십 노파가 첨단 기술을 배우자마자 이해할 수 있었으며, 찌는 듯한 무더위에 밀폐된 작은 방에서 작업하면서도 냉방 장치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답답하거나 덥다고 느끼지 않았고, 때때로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료 100장을 인쇄할 계획이었는데, 손에 잡은 백지 한 묶음을 인쇄하고 나서 세어보니 한 장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정확히 100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신기한 일은 가끔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제가 바빠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저의 작업 효율을 높이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길이 먼 수련생들의 편의를 위해 그들이 자료점을 만들도록 돕고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기간에 한 외지 수련생의 남편이 체포돼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집에 살지 못하고 저희 집으로 와서 어려움을 피했습니다. 수련생의 일은 바로 자신의 일이며, 특히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는 더욱 잘 돌봐야 했습니다. 저는 한 수련생이 두 무(畝, 1무는 약 200평)의 채소밭을 가지고 있고 밭에 몇 칸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세 식구가 먼저 그곳에 머물고 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일은 소문낼 수 없었습니다. 생활용품과 일용품 등 모든 필요한 것을 모두 준비했고 전담 인력이 돌보았습니다.

또 한 외지 수련생은 사악이 그를 잡으려 했을 때 노부부가 함께 담을 넘어 숨었는데, 결국 여성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저희 지역 수련생들이 그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생활의 모든 것을 현지 수련생들이 관심 갖고 돌봐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젊고 건강한 여성 수련생이 이곳에 오면 수련생이 운영하는 식품 가공 공장에

배치하고, 남성 수련생은 수련생이 운영하는 제분 가공 공장 등에 배치했습니다. 또 몇몇 외지 건강한 여성 수련생들에게는 숙소를 마련해 주고 일자리도 찾아주었습니다.

이상 저희가 한 일들은 베이징 수련생들이 한 일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사부님의 안배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오직 사부님께서 가르치신 훌륭한 제자만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5. 사악한 박해 속에서 대법을 굳게 수련하다

1) 유랑 생활과 수배 속에서도 사람 구하기를 견지하다

2013년 10월 어느 날, 한 여성 수련생이 프린터를 갖고 저희 집에 와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3분도 채 되지 않아 몇 명의 사복 경찰이 갑자기 저희 집으로 들어닥쳤습니다. 이때 저는 마침 프린터를 옮겨 숨기려고 하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제 앞에 와서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또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 뜻은 현장에서 붙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프린터를 가슴 앞에 높이 들어 올리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중생이 아름다운 미래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이것은 저의 사명입니다!” 이때 정법위원회, 610, 국보 대대, 파출소, 지역사회 등 많은 사람이 줄지어 마당으로 들어와 저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지혜롭게 그들을 모두 마당 밖으로 유인하고, 저는 대문 앞에 서서 한 발은 문 안에, 한 발은 문 밖에 둔 채, 대문을 붙잡고 서서 큰 소리로 그들과 구경하는 이웃, 행인들에게 진상을 말했습니다.

진상을 말하던 중, 저는 갑자기 대문을 쿵 닫고 빠르게 빗장을

걸어 잠근 후, 옆에 서서 온몸을 떨고 있는 남편(남편은 담이 작았습니다)에게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하니 저는 여기를 떠나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따라 별채 위로 빠르게 뛰어올랐고 다시 별채에서 본채로 뛰어내렸습니다. 본채는 옛날 기와집이었는데 저는 용마루 위로 올라간 다음 내려와, 인접한 폐허가 된 창고 지붕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다시 창고 지붕 위에서 용마루를 밟고 처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다시 평방 두 채와 담장 두 개를 연달아 뛰어넘어 안전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칠십이 넘는 고령이었습니다. 지붕 위를 오르고 용마루를 넘는 과정에서 발밑에 한 덩이의 에너지가 저를 은밀히 받쳐주어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는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 소리 없이 저를 보호해 흥함을 길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마당 밖의 그 많은 사람은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와 제가 그곳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뒤졌지만 저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한 무리 사람들은 서로 마주 보며 매우 당황하고 의아해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설마 이 노파가 하늘을 날아오르고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집을 떠난 후, 잘 아는 노년 수련생 집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같은 도시 내였기 때문에 사악은 곳곳을 수색했고, 또 각 웹사이트에 수배령을 내렸으므로 저는 다시 수련생과 헤어져 외지로 갔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이 자료점 하나를 소개해주었는데, 이 자료점은 지하에 있었고 매우 엄밀했습니다. 안에는 7대의 기계가 놓여 있었는데, 고장 난 기계 속의 좋은 부품을 조립해 만든 330 컬러 프린터와 노트북 컴퓨터 세 대였습니다. 이 수련생은 기술이 있어 각 고장 난 기계의 좋은 부품을 활용해 조립한 것입니다.

10월은 마침 명혜 달력을 만드는 시기였으므로 저는 매일 법공 부하고, 연공하고, 달력을 만들고, 자료를 인쇄했으며, 또 수련생들과 교류했습니다. 330 기계로 달력을 만들 때는 완전히 미러링을 사용했는데, 인쇄 속도는 느렸지만 인쇄된 판면은 선명하고 화려했습니다. 매일 기계를 켜기 전에 먼저 프린터와 교류하고, 그런 다음 첫 번째 기계부터 인쇄 설정을 하고, 한 대 한 대 아래로 설정해, 일곱 번째 기계에 설정할 때쯤 첫 번째 기계는 이미 인쇄를 마쳤습니다. 다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설정했는데, 품질과 수량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달력 인쇄를 마친 후, 기술 수련생이 집 안의 수련생들을 불러서 책자로 조립하고, 다시 비밀리에 밖으로 보내 수련생들에게 배포했습니다.

12월 말에 달력 인쇄를 중단했는데, 현지 수련생들은 제가 유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돌아오라고 하면서, 수련생 자신이 지은 2층짜리 집 한 채를 찾아주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후 집 면적이 넓어 현수막을 만들기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현수막 내용은 8가지였으며 글자가 많은 것은 길이 1.6미터, 폭 30센티미터 정도였습니다. 글자가 적은 것은 1.2미터 정도였습니다. 기술 수련생이 판을 새기고 천을 샀습니다. 완성된 현수막은 어떤 것은 나무에 걸고, 어떤 것은 전봇대에 걸어 사악을 떨게 했습니다. 또 각종 프린터, 컴퓨터, 옥 호신부 조각 기계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 지역 수련생들이 진상을 말하고 사람을 구하는 데 사용하도록 공급했습니다.

2) 박해 속에서 장쩌민을 고소하여 권력 남용을 고발하다

2015년, 저는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에 전 중공 중앙 총서기, 국가 주석,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장쩌민이 권력을 남

용해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감행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성이 말살된 잔혹한 박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해는 장쩌민의 비밀 명령 “3개월 내에 소멸”,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시킨다”, “때려죽여도 자살로 처리하고, 즉시 화장하며 신원 조사를 하지 않는다” 등을 실행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박해 속에서 비참하게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해로 인해 부상당하거나 불구자가 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 노동수용소에 투옥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납치돼 불법적으로 장기간 감금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랑 생활을 강요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도록 강요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직을 강요당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체 장기적출을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을 고집하는 사람 중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으며, 가족, 친구, 심지어 동료 이웃까지 연루돼 수억 명이 거대한 고난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박해의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유랑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려워 고소장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보냈는데, 여섯 통을 보냈지만 모두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종착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은 우체국에서 분실됐고, 어떤 것은 항공 운송 중에 공항에서 분실됐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하고 책을 읽고 법공부한 후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수련하는 것이지 자신이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 부를 인쇄해

직접 근처 우체국에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제가 컴퓨터를 켜서 확인해 보니 이미 뤼허(漯河) 역에 도착했습니다. 몇 시간 후, 다시 확인해 보니 정저우(鄭州)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16시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17시경 리(李)씨 성을 가진 우편배달부가 최고인민검찰원에 전달했습니다. 확인 후 안심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많은 수련생도 몇 번이나 보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젊은 수련생은 “인터넷으로 바로 그들의 사서함으로 보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와 다른 수련생은 젊은 수련생에게 가르침을 청해 주위 수련생들이 원고를 작성하고, 원고를 타자해 사서함으로 직접 발송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체국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위 수련생들은 모두 실명, 가정 주소, 전화번호를 명확하게 작성해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에 주범 장쩌민과 현지 사악의 부당한 가택수색과 감금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많은 수련생이 다시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앙기율위원회 사서함으로 직접 발송했습니다. 저도 중앙기율위원회에 고소장 한 통을 발송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는 병 때문에 파룬궁을 수련하게 됐고 좋은 몸을 얻었으며, 진선인(眞·善·忍)의 준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갈등을 만나면 자신을 안으로 찾아, 직장에 의료비를 절약해 주고, 가정이 행복하며, 이웃과 화목합니다. 이렇게 좋은 공법인데도 장쩌민은 기필코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 대법이 탄압받은 후, 저는 신앙을 견지하고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향 사람들에게 진상을 설명했는데, 이는 수많은 선량한 민중이 바른 것과 악을 분별하고, 자신을 구원하는 대법과 심성을 수련해 선하게 되는 대법제자를 선하게 대함으로써, 모두 복을 받고, 아름다운 미래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의 모든 언행은 《헌법》 제35조, 제36조가 규정한 국민의 언론, 출판, 신앙의 자유 범위 내에 있으며, 법률의 어떤 조항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완전히 합법적이고 선의적입니다.

◎ 그러나 장쩌민의 탄압 아래 저는 여러 차례 박해를 당하고 온갖 고난을 겪었으며, 팔십이 넘은 나이에 유랑 생활을 하며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의 여든 살 된 남편은 여러 차례 공포스러운 장면을 대하고, 장기간 공포 속에서 생활해 점차 치매가 됐으며 침대에서 대소변을 보아 저를 깊이 걱정하게 합니다. 저는 중앙기율위원회가 저의 억울한 사건에 관심을 갖고 헌법 규정에 따라 저의 억울한 판결과 수배를 취소해, 제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하고 노년의 치매 남편을 간호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중앙기율위원회는 진상을 밝혀 파룬따파와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결백을 회복시켜주고, 대법제자의 신앙 자유를 돌려주며,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법에 따라 처벌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발송은 예사롭지 않았는데, 중앙기율위원회가 이 편지를 성 위원회에 전송했고, 성 위원회는 시 위원회로, 시 위원회는 구 위원회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구 위원회는 저의 두 자녀를 찾아 “당신 어머니가 고소장을 썼는데 최고인민검찰원에 고소했고, 또 중앙기율위원회에도 고소했으며, 다시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면

유엔에도 고소할 것입니다. 당신들 둘이 당신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으면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남은 인생을 위해 저는 정(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 사악은 분개해 저를 신상(新鄉)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샛된 이론을 듣지 않았고 그들은 제가 관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큰 모임에서 비판하고, 작은 모임에서 지적하며 “나이를 내세워 잘난 체한다” 등 각종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가족이 세 번 면회를 갔지만 한 번도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백색 명찰을 달아 조사 중이라고 했고, 나중에는 저의 태도가 좋지 않다고 해 붉은색 명찰을 달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나올 때의 공문에는 “태도가 바르지 않고 관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6. 최후 결전에서 대법을 수호하다

1) 인식을 높이고, 사람 속에서 벗어나 박해에 반대하다

1999년 ‘7·20’, 사악한 박해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주 전장은 베이징 천안문 광장이었습니다. 전국 1억 명 이상의 수련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혹을 품고 성도,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습니다. 매우 강한 사람 마음, 쟁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파룬궁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연공하지 못하게 하는가?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국가에도 백 가지 이로움만 있고 해가 하나도 없다!’

2015년 7~8월에 이르러, 16년의 시간이 지난 후, 박해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저는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에 주범 장쩌민을 고소했습니다. ‘왜 비밀 명령 ‘3개월 내에 소멸’, ‘명예를 실추

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시킨다’, ‘때려죽여도 자살로 처리하고, 즉시 화장하며 신원 조사를 하지 않는다’ 등을 내렸는가?’ 매우 강한 증오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26년의 박해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일을 잘하는 것을 견지하는 동시에 저는 인식을 높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굳건한 믿음, 법, 진수제자의 정념과 능력, 법에서 비롯된 이지(理智)와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철저히 인간 속에서 벗어나 신(神)의 일면으로, 수련해 이룬 그 부분으로 발정념을 해, 우주 공간의 구세력과 사악한 생명, 공산악령, 부패한 물질 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이제는 제거하고 남은 것이 아주 적습니다. 지금 이것들은 그들의 최후 발악,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2) 정체를 형성하여 발정념으로 사악을 철저히 해체하다

이 천상(天象)이 이끄는 정사대전(正史대전)의 최후의 단계에서 사악의 목표는 미국에 계신 사부님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투는 26년 전 ‘7·20’ 법난 초기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련 초기처럼 속인의 쟁투를 섞거나, 증오심, 혹은 공산당의 혁명 방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강대한 자비로운 선념, 정념을 사용해 자신을 수련인으로 여기고 대법제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상태를 보여야 합니다.

‘7·20’ 법난 초기를 회상해 보면, 해외 수련생들이 국회로 걸어 들어가고, 대사관에 가서 진상을 말하고, 대사관 문 앞에서 정좌하는 등, 이 몇 년 동안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견지하는 정신, 대법을 수호하는 그 마음은 중국 수련생들의 박해 압력을 줄여주었고, 그러한 숭고한 품성은 존경스러웠습니다.

이제 이 정사대전에서 우리 중국 수련생들은 온 힘을 다해 발정

념을 해야 하는 책임이 더욱 막중합니다. 하물며 이번 대박해의 근원은 베이징에 있습니다! 사악은 베이징에서 끊임없이 미국으로 검은 에너지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신만 사람 마음에서 벗어나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주위 수련생들과 정체(整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저희 법공부 팀은 때로는 세 명, 때로는 다섯 명입니다. 법공부 전에 먼저 발정념을 합니다. 매일 네 번 발정념을 하며 의념으로 해외의 이번 소송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 매일 한 시간을 추가해 전문적으로 발정념을 해야 합니다. 사악을 제거하는 것은 정법으로 사람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악인이 대법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공간에서는 격렬한 정사대전으로 나타납니다.

이 대결전의 큰 시험에서, 그 당시 법난 초기, 중기 때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부님의 경문 《법난(法難)》을 읽고 나서 저는 사부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거대한 압력을 감당하셔야 할까요? 사부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감당하시고, 우주의 중생을 위해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부님의 위대한 창조, 신성한 위덕은 천하의 나뭇가지를 붓으로 삼고, 강과 호수, 바다의 물을 먹물로 삼아도 사부님의 홍대한 은혜를 다 쓸 수 없습니다. 사부님께서 우주 대법을 우리에게 안겨주셨고, 우리는 우주 대법에 동화하는 가운데 정화되고 승화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부님께 보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철저히 사심을 내려놓고, 철저히 다시 인간 속에서 벗어나, 철저히 편안한 생활을 내려놓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정법 결전에 투입해 대법을 실증하고, 대법을 수호하며, 기적을 나타내

야 합니다.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쟁취해야 합니다. 하세 전의 서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우주 중생에게 자신이 대법의 한 입자임을 실증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주의 바른 생명을 책임지는 수호자, 대각자(大覺者)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시간, 길든 짧은 사부님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제자는 변함 없이 세 가지 일을 잘할 것입니다. 특히 최후의 대결전에서 법을 잘 배우고 시간을 다그쳐 사람을 구할 것이며, 가족, 친척, 동료, 친구, 행인 등 누구에게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진상을 명확히 알려 사람을 구할 것입니다. 사부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법을 잘 배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하며, 사부님께서 안배해주신 최후의 수련의 길을 잘 걸어, 사부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원만하여 사부님을 따라 돌아가겠습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290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522만 0441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